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경기대학교 입학처
2026. 02.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1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2
3.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4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6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6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9
3.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10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11
1. 출제 전	11
2. 출제 과정	23
3. 출제 후	24
4. 문항 분석 및 평가	43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76
1. 출제 및 검토 개선	76
2. 출제 후 점검 강화	77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78

부 록

<부록 1> 문항카드 ①~●	79
<부록 2>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예시문항	129
<부록 3> 재외국민전형 면접 예시문항	132
<부록 4> 논술우수자전형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133
<부록 5>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134
<부록 6> 재외국민전형 면접고사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135

표 목 차

<표 I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표	1
<표 I -2>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결과표	2
<표 I -3>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표	3
<표 I -4>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4
<표 II -1>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	6
<표 II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9
<표 II -3> 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별 고사 일정	10
<표 II -4> 경기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10
<표 III -1> 언어·사회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일정	11
<표 III -2> 수리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일정	13
<표 III -3> 학생부종합전형 교육훈련 운영 내용	14
<표 III -4> 2025년 모의논술고사 응시 결과	22
<표 III -5> 2025년 모의논술고사 고교유형별 신청결과	22
<표 III -6>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23
<표 III -7> 출제·검토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24
<표 III -8> 출제·검토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	24
<표 III -9> 출제·검토위원의 역할과 권한의 충분성	25
<표 III -10> 출제·검토 기간의 충분성	25
<표 III -11> 선행학습 여부 분석 결과	26
<표 III -12>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27
<표 III -13>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28
<표 III -14> 논술고사 제시문 수준의 인식 분석 결과	28
<표 III -15> 논술고사 난이도 인식 분석 결과	29
<표 III -16> 논술고사 시험시간 분석 결과	30
<표 III -17> 논술고사 제시문 길이 분석 결과	30
<표 III -18> 모의논술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결과	31
<표 III -19> 모의논술고사와의 수준 비교 분석 결과	32

<표 III-20> 면접의 교과내용 포함 여부 분석 결과	33
<표 III-21> 면접관련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34
<표 III-22> 면접에서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 질문 여부 분석 결과	34
<표 III-23> 면접의 수준 인식 분석 결과	35
<표 III-24>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 분석 결과	36
<표 III-25>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 분석 결과	37
<표 III-26> 재외국민전형 면접의 교과내용 포함 여부 분석 결과	38
<표 III-27> 재외국민전형 면접관련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39
<표 III-28> 재외국민전형 면접에서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 질문 여부 분석 결과	39
<표 III-29> 재외국민전형 면접의 수준 인식 분석 결과	40
<표 III-30> 재외국민전형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 분석 결과	41
<표 III-31> 재외국민전형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 분석 결과	42
<표 III-32>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43

그림 목 차

[그림 Ⅲ-1] 언어·사회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12
[그림 Ⅲ-2] 수리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13
[그림 Ⅲ-3]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실시 방법(개요)	22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표 1-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표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 (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O,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 과정 관련 여부 (O, X)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 구술 고사	실기 · 실험 고사	교직적 성 성 검사	기타	
수 시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학교 장추천전형/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등선발전형)	인문계열 예술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X						X
	학생부종합 (KGU학생부종합전형/SW우수 자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인문계열 예술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O		O				X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선발전형/사회 배려대상자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X						X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O	O					O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체육계열	O		O				X
	실기/실적(예체능우수자 전형/특성화고졸업자전형)	예체능계열	O			O			X
	실기/실적 (특성화고SW우수자전형)	자연계열	O		O				X
	재외국민전형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O		O				X
정 시	수능(일반학생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X						X
	수능(일반학생전형)	예체능계열	O			O			
	수능(농어촌학생전형/기 초생활수급자등선발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X						X
	수능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인문계열 예술계열 자연계열	X						X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예체능계열	O			O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2>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결과표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https://enter.kyonggi.ac.kr/intro.do > 자료실 > 기타입학자료 >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표 1-3>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표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 (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 과정 관련 여부 (○, X)	영 향 평 가 실 결 과
				논 술 등 필 답 고 사	면 접 · 구 술 고 사	실 기 · 실 험 고 사	교 직 성 · 인 성 검 사	기 타		
수 시	학생부교과 (교과성적우수자전형/학교 장추천전형/농어촌학생전 형/기초생활수급자등선발 전형)	인문계열 예술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X						X	준수
	학생부종합 (KGU학생부종합전형/SW 우수자전형/특수교육대상 자전형)	인문계열 예술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		○				X	준수
	학생부종합 (기회균형선발전형/사회 배려대상자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X						X	준수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	○					○	준수
	실기/실적(체육특기자전형)	체육계열	○		○				X	준수
	실기/실적(예체능우수자 전형/특성화고졸업자전형)	예체능계열	○			○			X	준수
	실기/실적 (특성화고SW우수자전형)	자연계열	○		○				X	준수
	재외국민전형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		○				X	준수
정 시	수능(일반학생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X						X	준수
	수능(일반학생전형)	예체능계열	○			○			X	준수
	수능(농어촌학생전형/기 초생활수급자등선발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X						X	준수
	수능 (특성화고졸업자전형)	인문계열 예술계열 자연계열	X						X	준수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	예능계열	○			○			X	준수

3.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표 I-4>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 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논술 등 필 답 고 사	논술 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국어 사회 한국사 일반과목	1	A-1	○								
				2	A-2		○							
				3	B-1	○								
				4	B-2		○	○						
		인문계열 자연계열	수학 수학 I 수학 II	5	A-1				○					
				6	A-2				○					
				7	B-1				○					
				8	B-2				○					
면 접 · 구 술 고 사	학생부종합 전형 (KGU학생부 종합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사범계열 예술계열	공지한 바 없음	-	-									
	학생부종합 전형 (SW 우수자전형)	자연계열		-	-									
	학생부종합 전형 (KGU학생부 종합전형/ 디자인비즈)	예술계열		9	-									
	재외국민 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	-									

경기대학교가 실시한 2026학년도 대학별 고사 중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전형은 ①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②KGU학생부종합전형(디자인비즈학부) 면접시험이 해당한다.

KGU학생부종합전형(일반)과 KGU학생부종합전형(SW우수자전형), 재외국민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실 확인 면접으로, 서류 진위 확인을 위한 신뢰성 검증 질문을 기반으로 사회 영역(인성, 공동체의식) 관련 질문, 잠재역량(전공(계열)관련 활동 및 경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가능성 등)에 관한 질문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교과지식과 관련된 질문은 묻고 있지 않아 선행학습 영향평가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문항 분석은 진행하지 않는 대신 면접 예시 문항을 <부록2>, <부록3>에 공개한다. KGU학생부종합전형(디자인비즈학부)의 경우 학부 특성상 지원자들의 아이디어스케치 및 발표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교과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자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 출제를 하고 있어 본 자체평가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출 문항에 대하여 별도로 <문항9>에 내용을 제시하였다.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표 II-1〉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 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 평가 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경기대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학교 규칙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번호 3(편) 7(장) 38(절)).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 입학전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배제하고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 정의) ① '선행교육' 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② '선행학습' 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범위와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①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3인 내외를 포함하여 총 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학팀장 또는 입학사정관실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본교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학처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

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입학처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제 5 조 (방법 및 절차)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전형이 종료된 후 시행한다.

②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이나 학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형태의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교과 지식과 관련된 면접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면접에 활용한 문항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2항에서 문항을 제시하고자 할 때 학생별로 면접 문항이 다른 경우 대표적 사례를 제시한다.

④ 교과 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설문조사 또는 문항 평가,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 분석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⑥ 영향평가 결과 본교의 입학전형이 고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 6 조 (적용의 배제) 입학전형의 내용이 예체능 실기고사 또는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신설 2015.02.1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경기대학교는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제2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었다.

제 3 조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 ① 본교 입학전형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 3인 내외를 포함하여 총 4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입학팀장 또는 입학사정관실 팀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입학처장(위원장)을 비롯해 입학팀장(이상 당연직), 전임 교원 2명, 현직 고교 교사 4명을 합하여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 중 현직 고교 교사의 비율은 50%에 해당한다.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은 아래의 <표 II -2>와 같다.

<표 II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연번	구분	성명	소속/직위	임기
1	위원장	김○○	입학처장	임기중
2	위원	김○	경기대학교 교수	2025.06.01. ~ 2026.05.31. <1년>
3	위원	이○○	경기대학교 교수	
4	위원	김○○	영○고 교사	
5	위원	우○○	원○고 교사	
6	위원	이○○	상○고 교사	
7	위원	이○○	군○고 교사	
8	간사	이○○	입학팀장	임기중

3.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은 <표 II-3>에 제시한 경기대학교 대학별 고사 일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진행일정은 <표 II-4>와 같다.

<표 II-3> 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별 고사 일정

고사일정	대상 전형명	계열	고사유형
2025.08.09.(토)	[수시] 재외국민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면접고사
2025.11.23.(일)	[수시] KGU학생부종합전형	사범계열, 예술계열	
2025.11.29.(토) ~ 2025.11.30.(일)	[수시] KGU학생부종합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	
2025.11.23.(일)	[수시]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인문계열	
2025.11.23.(일)	[수시] SW우수자전형	자연계열	
2025.11.21.(금)	[수시] 논술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논술고사

<표 II-4> 경기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일정	내용
2025.05.01. ~ 05.31.	모의논술 문항 출제 및 분석 연구회의
2025.06.01.	202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2025.06. ~ 2025.11.	출제위원 연구회의
2025.11.18. ~ 11.21.	영역별 고사 문항 분석 및 교사 자문
2025.11.21.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위원대상 설문조사
2025.11.21.~11.24. (면접고사)	면접(재외국민전형) 응시학생 대상 설문조사
2025.11.21.~11.24. (논술고사)	논술 및 면접(학생부종합전형) 응시학생 대상
2025.11.23.~12.01. (면접고사)	설문조사
2025.12. ~ 2026.0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2026.02.	보고서 위원회 발송 후 검토의견서 접수
2026.02.	검토의견 반영 후 보고서 최종 점검
2026.02.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 (내부결재)
2026.03.31.까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게재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1. 출제 전

1) 고교 교육과정 분석

경기대학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준수한 문항 출제를 위해 논술 출제 위원 연구회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2026학년도 모의논술 결과 및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를 통해 올해 문제 출제 방향을 설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출제·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1)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언어·사회 논술과 수리 논술 해당 영역별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를 진행하였다. 연구회의는 논술 출제기간 전인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회의의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비롯해 2025년 논술 출제 방향, 유의사항 및 영역별 연구위원 문항 연구, 신규 출제위원의 분야별 주제 선정 방안 협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역별 논술 연구회의 일정은 아래의 <표Ⅲ-1>, <표Ⅲ-2>와 같다.

<표 Ⅲ-1> 언어·사회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일정

차수	일시	내용
1	2025.06.25.(수)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연구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 방안 설정 및 논의
2	2025.07.23.(수)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관련 자료 확인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기본 방향 확인(언어, 사회)
3	2025.08.27.(수)	202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주의사항 안내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언어, 사회)
4	2025.09.10.(수)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언어)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논술고사 문제 구성의 논리적 적합성 검토

차수	일시	내용
5	2025.10.01.(수)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사회)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6	2025.10.22.(수)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언어, 사회)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7	2025.11.12.(수)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사회)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논술고사 문제 구성의 논리적 적합성 검토



[그림 Ⅲ-1] 언어·사회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표 III-2〉 수리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일정

차수	일시	내용
1	2025.06.25.(수)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연구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2026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출제 방안 설정 및 논의
2	2025.07.10.(목)	2026학년도 수리 논술고사 출제 방향 논의 2026학년도 각 영역별 문항 검토 및 난이도 조정 논의(수리)
3	2025.08.26.(화)	2026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주의사항 안내 2026학년도 수리 논술고사 출제 방향 논의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수리)
4	2025.09.23.(화)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수리) 2026학년도 수리 논술고사 출제 방향 검토
5	2025.10.16.(화)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수리) 2026학년도 수리 논술고사 출제 방법 검토
6	2025.11.06.(목)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문제 검토(수리) 202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그림 III-2] 수리 논술 출제위원 연구회의

(2)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위원 대상 면접 및 고교이해 역량 강화 교육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앞서 면접위원에 해당하는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을 대상으로 면접 및 고교 이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교육의 주제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의 이해를 비롯하여 면접평가시스템 교육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해 직접 모의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시행해보는 것으로 면접평가의 실질적인 이해를 강화하였다.

또한 고교 이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의 주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비롯하여 고교유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이해,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의 이해, 대입제도 및 대입전형의 이해 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III-3〉 학생부종합전형 교육훈련 운영내용

연번	공통/서류/면접	이론/모의	소분류	측정요인	교육내용	교육기관
1	공통	이론	고교교육 현장의 이해	고교이해 역량	2022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대교협
2	서류	이론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대교협
3	서류/면접	이론/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사회계열 모의 실습	경기대
4	공통	이론/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인문계열 모의 실습	경기대
5	서류/면접	이론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및 기록의 이해	경기대
6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1차 인문계열 교육	경기대
7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1차 사회계열 교육	경기대
8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1차 자연 공학계열 교육	경기대
9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1차 관광예체능 계열 교육	경기대
10	서류/면접	모의	고교교육 현장의 이해	고교이해 역량	모의평가 고교유형 계열 교육	경기대
11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2차 자연 공학계열 교육	경기대
12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2차 관광예체능계열 교육	경기대

연번	공통/서류/면접	이론/모의	소분류	측정요인	교육내용	교육기관
13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2차 인문계열 교육	경기대
14	서류/면접	모의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모의평가 2차 사회계열 교육	경기대
15	공통	이론	평가기준과 지침의 이해	평가역량	2026학년도 학생부위주전형의 이해	경기대

2) 출제·검토위원회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경기대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제1항 ‘대학 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근거하여 대학별 고사 출제·검토위원회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 교육의 주제는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문항카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각 위원들 별로 출제 합숙에 들어가기 전 실시하였다.

(1) 출제위원 사전 교육

- 일자 : 2025년 11월 16일(일)
- 장소 : 경기대학교 본관 회의실
- 대상 : 논술고사 문항 출제위원 (전임교원)
- 내용 :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수내용 확인,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에 대한 안내

(2) 검토위원 사전 교육

- 일자 : [수리논술] 2025년 11월 18일(화)
[언어·사회논술] 2025년 11월 18일(화)
- 장소 : 경기대학교 입학처장실
- 대상 : 논술고사 문항 검토위원 (고교교사)
- 내용 :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문항카드 내용 구성 안내

(4) 검토위원 사전 연수 자료

KICE

2026학년도 적용 교과목 및 교육과정 안내

KICE

대학별고사 출제 시 유의사항 안내

- ▶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성
- ▶ 정확한 교육과정 문서
- ▶ 교육과정 해석의 신뢰성
- ▶ 공정한 출제 근거
- ▶ 검토의 전문성 및 독립성

KICE

정확한 교육과정 문서의 적용

- ✓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 문서를 확보하여 활용해야 함. 교육과정 개정 결과는 모서기 새로운 문서로 갱신되기 때문에, 출제 시 최근의 교육과정 문서를 적용해야 함.
- ✓ 현재 세 과목별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있으며 단행본으로 적용 확대되어 27학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에게 적용됨. 따라서 28학년도 대학별고사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

KICE

검토 과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

- ✓ 문항의 교육과정 관련성 부족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문항의 출제 조건 등 출제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어, 검토 과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 고등학교 교원을 검토위원으로 투입하고 이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항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검토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제자와 검토위원의 접촉 및 의사소통 방식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KICE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KICE

2-1.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과목 예시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료 선택
기초	국어	국어	회화와 지문 독서, 언어의 형태,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교과 탐구, 인공지능 수학
	영어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지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의 문화, 진로 영어, 영어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I, 세계사 I,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 문화, 생활과 문화, 창의의 사상	여행지리, 시지문예 탐구, 고전과 우리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한국사 I, 세계사 I,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 문화, 생활과 문화, 창의의 사상	여행지리, 시지문예 탐구, 고전과 우리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지구과학 III	물리학 II, 화학 I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KICE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

▶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공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

제23호(교육과정) 훈령 (제출: 1980년)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과정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자립에 상당한 기본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198호(안부조치), 2021.7.29 제12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차) (제정: 2002.7.21))

③ 적용하는 국가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 제2호제호에 따른 유치를 뜻 '조' 중등교육법, 제2호제호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에 별다른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 **국가교육위원회**

KICE

공정한 출제 근거 자료의 사용

- ✓ 교과서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용', '도전', '더 알아보기' 등과 같이 본문 이외의 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을 출제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가급적 다수의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출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함.
- ✓ EBS 교재를 출제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KICE

대학별고사 출제 위험 관리

- ✓ 대학별고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과정은 다양한 정당화 물의 적절할 필요가 있음이며, 이의 정당성이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문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출제 관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교육과정 적용의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제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환기 및 출제 과정의 체계화를 통해서 관련 위험 관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KICE

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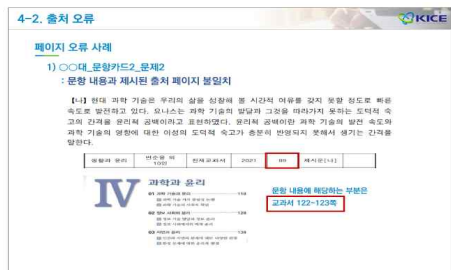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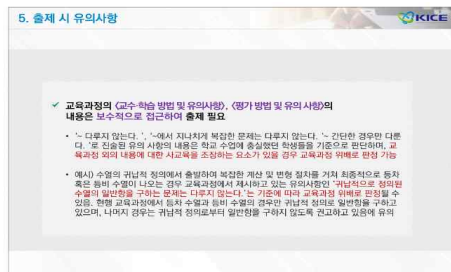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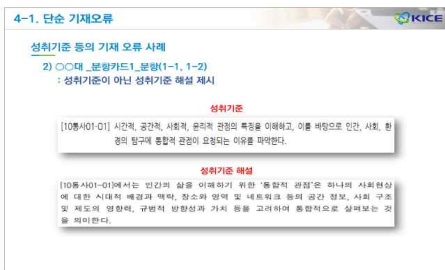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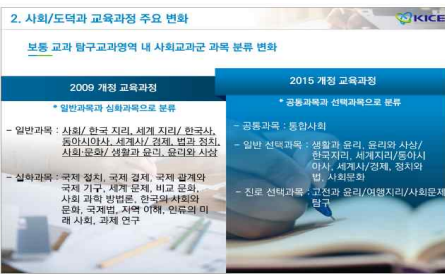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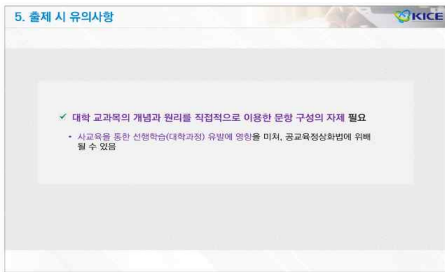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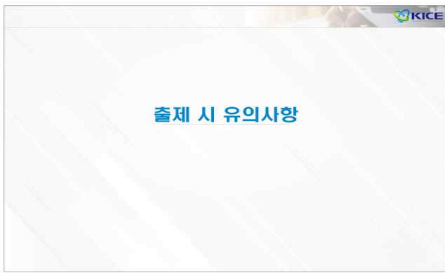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과목 구성

▶ **선택: 국어과(교육과정)제2015-74호**

종류	종목	교과목	
		일반 선택	진료 선택
국어	국어	회화와 지문 독서, 언어의 형태,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단위: 시간 0015-33)

-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으나 2026학년도 고3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음
- ▶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임
- ▶ 공통과목 국어를 이수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 과목 이수



3) 모의 논술고사 실시

경기대학교는 논술우수자전형에서 수험생의 배경과 학습 환경에 따른 정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출제 경향 및 문제 유형을 사전에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수험생이 논술고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전형 준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본 모의논술고사는 공교육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수험생이 실제 논술고사의 형식과 요구 수준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논술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문항을 활용한 모의논술고사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논술고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문항 해설과 채점기준을 안내함으로써 논술전형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교육 의존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모의논술고사 실시 전에는 고교 방문 입학설명회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논술우수자전형의 운영 취지와 모의논술 운영 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의논술고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모의논술고사는 다양한 지역 및 학교 규모의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응시자는 정해진 응시 기간 내에 자유롭게 시간대를 선택하여 온라인 응시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제한시간(100분) 내에 답안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모의논술 문항은 2026학년도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하였다. 언어·사회논술은 국어, 사회, 한국사 일반교과 범위 내에서 언어 영역과 사회 영역 각 1문항씩 총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리논술은 수학, 수학 I, 수학 II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총 2문항을 출제하였다.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제시문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고등학교 교사의 검토를 거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문항의 적합성과 난이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사 종료 후에는 본교 전임교원 4인이 영역별 채점을 실시하였으며, 응시자 전원에게 문항별 채점 결과를 제공하여 자신의 논술 역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의논술고사 문제, 문항 해설 및 채점기준을 영상 자료로 제작하여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본교 논술고사의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모의논술 운영 결과, 실제 논술고사 출제 문항에 대한 수험생의 난이도 체감 수준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논술전형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이 출제 경향을 이해하고 논술 준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모의논술고사의 개요 및 진행 과정은 아래의 [그림 III-3]과 같으며, 2025년 모의논술고사 응시 결과는 <표 III-4>에, 2025년 모의논술고사 고교유형별 신청 결과는 [표 III-5]에 제시하였다.



[그림 III-3] 온라인 모의논술고사 실시 방법(개요)

<표 III-4> 2025년 모의논술고사 응시 결과

구분	신청인원(명)	응시인원(명)	미응시인원(명)	응시율(%)
모의논술고사	306	262	44	85.62

<표 III-5> 2025년 모의논술고사 고교유형별 신청결과

구분	일반고	검정고시	자사고	특성화고	특목고	기타	예술고	자공고	계
인원(명)	276	9	5	5	4	3	2	2	306
비율(%)	90.19	2.94	1.63	1.63	1.30	0.98	0.65	0.65	100

2. 출제 과정

1)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경기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꾸준히 논술고사의 문항 출제 과정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언어·사회영역에서 2020학년도까지 한 명의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202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영역별 한 명씩 총 두 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2025학년도부터 수리논술 신설에 따라 각 논술영역별로 두 명의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4명의 교사가 검토 과정에 참여하였다.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I-6〉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논술우수자전형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우수자 전형	출제위원	12명	12명	0명 (0명)
	검토위원	4명	0명	4명 (4명)

2) 고교 교원의 출제·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본교의 검토위원은 대학별고사 문항 및 제시문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출제 문항의 적절성과 난이도에 대해 점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어휘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대학별고사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검토위원은 2025년 11월 18일(화) ~ 11월 20일(목) 중 출제 영역별 별도의 일자에 모여 사전 교육을 이행하였다. 이후 출제장소에 합류하여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검토위원은 문항과 제시문이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문항 수정을 제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3. 출제 후

1) 출제·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1)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여부 및 내용

경기대학교는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점검을 위해 출제위원 12명과 검토위원 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4개의 문항으로 ‘출제·검토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출제·검토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 ‘출제·검토위원의 역할과 권한의 충분성’, ‘출제·검토기간의 충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III-7>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응답자 모두가 출제·검토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를 위해 실시한 사전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표 III-8>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제·검토위원의 역할과 권한의 경우에도 <표 III-9>에서와 같이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제·검토 기간에서도 <표 III-10>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응답자 모두가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7> 출제·검토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문항내용		빈도	%
출제·검토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5	93.8
	그렇다	1	6.2
	보통이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전체		16	100

<표 III-8> 출제·검토 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

문항내용		빈도	%
출제·검토 전 고교 교육과정에 이해를 위한 교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2	75.0
	그렇다	2	12.5
	보통이다	2	12.5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전체		16	100

〈표 III-9〉 출제·검토위원의 역할과 권한의 충분성

문항내용		빈도	%
출제·검토위원의 역할(비밀유지, 객관성확보, 고교교육과정준수)과 권한은 충분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14	87.5
	그렇다	2	12.5
	보통이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전체		16	100

〈표 III-10〉 출제·검토 기간의 충분성

문항내용		빈도	%
출제·검토기간은 충분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13	81.3
	그렇다	2	12.5
	보통이다	1	6.2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전체		16	100

(2) 전년도 출제·검토과정에 대한 개선 실적

본교 논술고사 문제 출제의 신뢰성과 교육과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어·사회 및 수리 영역 모두에서 다양한 전공의 전임교수가 출제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 유형과 수준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수험생에게 공정하고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검토과정에서는 언어·사회 논술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논술고사 검토위원을 각 영역별 1명씩, 총 2명의 고교 교사로 구성하여 영역별 검토를 수행하였다. 수리 논술은 수학 교과 교사 2명을 검토위원으로 참여시켜, 출제 문항과 검토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강화하였다.

또한 검토위원 합숙 전 사전연수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 교육과 함께, 문항카드 작성 내용과 방법, 문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고교 교육과정 부합 여부 점검, 문항 수정 제청 등 독립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2) 수험생 대상 선행학습 유발 요소 및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전형의 논술(논술우수자전형)과 학생부종합(KGU학생부종합전형) 및 재외국민전형에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및 영향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수험생들 중 2,690명, 학생부종합(KGU학생부종합전형) 수험생들 중 995명, 재외국민전형 수험생들 중 51명이 응답하였다. 각 설문의 양식은 <부록 4>, <부록 5>, <부록 6>을 통해 공개하며,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논술우수자전형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학교 진학을 위한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III-11> 선행학습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13	22.8
	그렇지 않다	540	20.1
	보통이다	582	21.6
	그렇다	543	20.2
	매우 그렇다	412	15.3
전체		2,690	100

이에 대한 응답자 2,69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11>에서 알 수 있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8%(613명)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21.6%(582명), ‘그렇다’ 20.2%(543명), ‘그렇지 않다’ 20.1%(540명), ‘매우 그렇다’ 15.3%(412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1%(1,537명)는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을 학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교 논술전형에 위한 선행학습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교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 III-12>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가 30.2%(81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3.1%(621명), ‘전혀 그렇지 않다’ 21.4%(575명), ‘그렇다’ 17.6%(473명), ‘매우 그렇다’ 7.7%(2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 논술전형이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라는 답변이 높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하면 74.7%(2,009명)의 응답자가 경기대학교의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는 학습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2>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575	21.4
	그렇지 않다	813	30.2
	보통이다	621	23.1
	그렇다	473	17.6
	매우 그렇다	208	7.7
전체		2,690	100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논술고사의 체감 난이도와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13〉 논술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2	2.3
	그렇지 않다	231	8.6
	보통이다	498	18.5
	그렇다	998	37.1
	매우 그렇다	901	33.5
전체		2,690	100

〈표 III-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 라는 응답이 37.1%(99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다’ 33.5%(901명), ‘보통이다’ 18.5%(498명), ‘그렇지 않다’ 8.6%(231명), ‘전혀 그렇지 않다’ 2.3%(62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교 논술고사 문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순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응답자의 89.1%(2,397명)가 고등학교 교과서 기본 개념을 이용하여 서술이 가능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기대학교의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4〉 논술고사 제시문 수준의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6	2.4
	그렇지 않다	225	8.4
	보통이다	572	21.3
	그렇다	950	35.3
	매우 그렇다	877	32.6
전체		2,690	100

<표 III-14>는 논술고사의 제시문 수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 는 응답이 35.3%(950명)로 가장 높으며 ‘매우 그렇다’ 32.6%(877명), ‘보통이다’ 21.3%(572명), ‘그렇지 않다’ 8.4%(225명), ‘전혀 그렇지 않다’ 2.4%(66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의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89.2%(2,399명)의 응답자가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제공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응답자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제시문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5> 논술고사 난이도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869	32.3
	그렇지 않다	990	36.8
	보통이다	487	18.1
	그렇다	253	9.4
	매우 그렇다	91	3.4
전체		2,690	100

<표 III-15>은 논술고사의 난이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렇지 않다’ 응답이 36.8%(99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32.3%(869명), ‘보통이다’ 18.1%(487명), ‘그렇다’ 9.4%(253명), ‘매우 그렇다’ 3.4%(9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87.2%(2,346명)의 응답자가 논술고사의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 등에 대한 체감 난이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거나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6〉 논술고사 시험시간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의 시험시간(100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73	2.6
	그렇지 않다	206	7.7
	보통이다	346	12.9
	그렇다	774	28.8
	매우 그렇다	1,291	48.0
전체		2,690	100

〈표 III-16〉는 논술고사 시험시간이 충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의 시험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48.0%(1,291명), ‘그렇다’ 28.8%(774명), ‘보통이다’ 12.9%(346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7.7%(206명), ‘전혀 그렇지 않다’ 2.6%(73명)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술고사 시험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에서 76.8%(2,065명)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89.7%(2,411명)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논술고사 시험시간(100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7〉 논술고사 제시문 길이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4	0.9
	그렇지 않다	70	2.6
	보통이다	257	9.6
	그렇다	1,036	38.5
	매우 그렇다	1,303	48.4
전체		2,690	100

<표 III-17>는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48.4%(1,303명), ‘그렇다’ 38.5%(1,036명), ‘보통이다’ 9.6%(257명), ‘그렇지 않다’ 2.6%(70명), ‘전혀 그렇지 않다’ 0.9%(24명)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6.9%(2,339명)가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96.5%(2,596명)의 응답자가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가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I-18>은 경기대학교에서 실시한 모의논술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III-18> 모의논술고사 참여 여부에 대한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에 참여하였습니까?	예	308	11.4
	아니오	2,382	88.6
전체		2,690	100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논술고사 참여여부에서는 ‘예’ 라고 11.4%(308명)가 응답하였고, ‘아니오’ 라고 88.6%(2,382명)가 응답하였다.

위 설문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논술고사와 모의 논술고사의 수준에 대해 비교하고자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하였다면, 실제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9〉 모의논술고사와의 수준 비교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와 실제 전형에서의 논술고사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9	12.6
	그렇지 않다	28	9.1
	보통이다	57	18.5
	그렇다	149	48.4
	매우 그렇다	35	11.4
전체		308	100

설문결과 〈표 Ⅲ-19〉과 같이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논술고사와 실제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라는 질문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59.8%(184명)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는 18.5%(57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78.3%(241명)가 모의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모의논술고사와 실제 논술고사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평가한 만큼, 수험생들이 실제 논술고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논술고사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표 III-20>과 같다. ‘그렇다’ 33.8%(336명), ‘매우 그렇다’ 32.4%(322명), ‘보통이다’ 15.1%(150명), ‘그렇지 않다’ 10.9%(108명), 전혀 그렇지 않다’ 7.8%(7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통이다’ 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81.3%(808명)의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을 학습하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III-20> 면접의 교과내용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79	7.8
	그렇지 않다	108	10.9
	보통이다	150	15.1
	그렇다	336	33.8
	매우 그렇다	322	32.4
전체		995	100

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위한 선행학습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표 III-21>과 같다. ‘보통이다’ 의 응답이 27.3%(272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 23.8%(237명), ‘그렇지 않다’ 23.5%(234명), ‘전혀 그렇지 않다’ 14.0%(139명), ‘매우 그렇다’ 11.4%(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과반수가 넘는 64.8%(645명)의 응답자가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학습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대한 다른 질문에

비해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면접 준비에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문항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고교 생활 중 수행한 심화 학습 활동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해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III-21〉 면접관련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39	14.0
	그렇지 않다	234	23.5
	보통이다	272	27.3
	그렇다	237	23.8
	매우 그렇다	113	11.4
전체		995	100

다음으로는 경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대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면접에서 제시된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2〉 면접에서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 질문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50	25.1
	그렇지 않다	276	27.7
	보통이다	192	19.3
	그렇다	201	20.2
	매우 그렇다	76	7.6
전체		995	100

분석 결과 <표 III-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보다 심화된 내용 지식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 27.7%(276명), ‘전혀 그렇지 않다’ 25.1%(250명), ‘그렇다’ 20.2%(201명), ‘보통이다’ 19.3%(192명), ‘매우 그렇다’ 7.6%(7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한 학생들은 52.8%(526명)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까지 합하면 72.1%(718명)의 학생이 면접 질문이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 응시한 학생들의 다수가 경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질문이 교과의 심화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 참여에 대한 확인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3> 면접의 수준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교의 사고 수준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8	0.8
	그렇지 않다	18	1.8
	보통이다	89	8.9
	그렇다	350	35.2
	매우 그렇다	530	53.3
전체		995	100

면접의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교의 사고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23>과 같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다’ 53.3%(530명), ‘그렇다’ 35.2%(350명), ‘보통이다’ 8.9%(89명), ‘그렇지 않다’ 1.8%(18명), ‘전혀 그렇지 않다’ 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까지 포함하여 97.4%(969명)의 학생들이 면접 질문이 고등학교의 사고 수준에서 제시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기대학교 면접에서 제시된 질문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고 수준에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었던 면접 질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4〉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 등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	0.6
	그렇지 않다	14	1.4
	보통이다	59	5.9
	그렇다	244	24.5
	매우 그렇다	672	67.6
전체		995	100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를 알아보는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 등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24〉와 같다. 응답 결과 ‘매우 그렇다’ 67.6%(672명), ‘그렇다’ 24.5%(244명), ‘보통이다’ 5.9%(59명), ‘그렇지 않다’ 1.4%(14명), ‘전혀 그렇지 않다’ 0.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92.1%(916명)이고, ‘보통이다’ 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8.0%(975명)의 학생이 면접 질문이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KGU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질문내용이 제출서류(학생부) 기반의 면접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별도의 선행학습의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중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응답결과는 〈표 III-25〉과 같다.

〈표 III-25〉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3	1.3
	그렇지 않다	50	5.0
	보통이다	211	21.2
	그렇다	400	40.2
	매우 그렇다	321	32.3
전체		995	100

〈표 III-25〉의 분석 결과 ‘그렇다’ 40.2%(400명), ‘매우 그렇다’ 32.3%(321명), ‘보통이다’ 21.2%(211명), ‘그렇지 않다’ 5.0%(50명), ‘전혀 그렇지 않다’ 1.3%(13명)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72.5%(721명)이고,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93.7%(932명)의 학생이 면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면접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재외국민전형 면접고사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재외국민전형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외국민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표 III-26>와 같다. ‘보통이다’ 27.4%(14명), ‘그렇다’ 21.6%(11명), ‘전혀 그렇지 않다’ 21.6%(11명), ‘그렇지 않다’ 19.6%(10명), ‘매우 그렇다’ 9.8%(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보통이다’ 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68.6%(35명)의 학생이 재외국민전형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을 학습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재외국민전형 면접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을 넘지 않는 개념 등을 학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III-26> 재외국민전형 면접의 교과내용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재외국민특별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1	21.6
	그렇지 않다	10	19.6
	보통이다	14	27.4
	그렇다	11	21.6
	매우 그렇다	5	9.8
전체		51	100

이에 따라 재외국민특별전형 면접을 위한 선행학습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결과는 <표 III-27>와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 51.0%(26명)와 ‘보통이다’ 가 각 31.4%(16명)로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보통이다’ 11.8%(6명), ‘매우 그렇다’ 3.8%(2명), ‘그렇다’ 2.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혀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지원자는 82.4%(42명)이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하면 94.2%(48명)의 응답자가 재외국민전형 면접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학습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국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다수가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과정 내에서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7〉 재외국민전형 면접관련 선행학습 효과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본교 재외국민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6	51.0
	그렇지 않다	16	31.4
	보통이다	6	11.8
	그렇다	1	2.0
	매우 그렇다	2	3.8
전체		51	100

다음으로는 경기대학교 재외국민전형 면접에 대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면접에서 제시된 질문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8〉 재외국민전형 면접에서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 질문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32	62.7
	그렇지 않다	14	27.5
	보통이다	3	5.9
	그렇다	2	3.9
	매우 그렇다	0	0.0
전체		51	100

분석 결과 〈표 III-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보다 심화된 내용 지식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가 62.7%(3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27.5%(14명), ‘보통이다’ 5.9%(3명), ‘그렇다’ 3.9%(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90.2%(46명)이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까지 합하면 96.1%(49명)의 학생이 면접질문이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대학교 재외국민전형 면접에서 교과 수업 참여 관련 사항이 적혀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과 수업 참여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9〉 재외국민전형 면접의 수준 인식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생의 사고 수준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0	0.0
	보통이다	3	5.9
	그렇다	10	19.6
	매우 그렇다	38	74.5
전체		51	100

면접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생의 사고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II-29〉과 같다. 응답 결과는 ‘매우 그렇다’ 74.5%(38명), ‘그렇다’ 19.6%(10명), ‘보통이다’ 5.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한 경우 100%(51명)의 학생들이 면접 질문이 고등학교의 사고 수준에서 제시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기대학교 면접에서 제시된 질문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준에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었던 면접 질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0〉 재외국민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1	2.0
	보통이다	2	3.9
	그렇다	12	23.5
	매우 그렇다	36	70.6
전체		51	100

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요소 포함 여부를 알아보는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30〉과 같다. 응답 결과 ‘매우 그렇다’ 70.6%(36명), ‘그렇다’ 23.5%(12명), ‘보통이다’ 3.9%(2명), ‘그렇지 않다’ 2.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94.1%(48명) 이었으며,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98.0%(50명)의 학생이 면접 질문이 학생부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면접 질문이 제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재외국민전형의 면접이 제출 서류인 학생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본교의 재외국민전형을 준비하는데 별도의 선행학습의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전형 전형방법 중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재외국민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응답결과는 〈표 Ⅲ-31〉와 같다.

〈표 III-31〉 재외국민전형 면접평가에 대한 필요 여부 분석 결과

문항내용		빈도	%
재외국민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그렇지 않다	1	2.0
	보통이다	8	15.7
	그렇다	15	29.4
	매우 그렇다	27	52.9
전체		51	100

〈표 III-31〉의 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 52.9%(27명), ‘그렇다’ 29.4%(15명), ‘보통이다’ 15.7%(8명), ‘그렇지 않다’ 2.0%(1명)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응답까지 포함하는 경우 98.0%(50명)의 학생이 면접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을 통하여 재외국민전형 선발 과정에서 본인의 어필할 수 있으며 면접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문항 분석 결과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표 III-32〉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대학 별 고사 유형	전형명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 과정 준수 여부	문항 불 임 번호
논술 등 필답 고사	논술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A형	A-1 (언어)	문학	0	①
				A-2 (사회)	한국사, 통합사회, 정치와 법	0	②
			B형	B-1 (언어)	국어, 문학	0	③
				B-2 (사회)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세계사	0	④
			A형	A-1 (수리)	수학, 수학 I	0	⑤
				A-2 (수리)	수학, 수학 II	0	⑥
			B형	B-1 (수리)	수학 I	0	⑦
				B-2 (수리)	수학 II	0	⑧
면접 고사	KGU학생부종합 전형 (디자인비즈학부)	예술계열	-	-	미술, 미술창작	0	⑨

2) 문항 분석 결과

• 자문위원 별 분석 대상 문항

구분	담당 교과	분석 대상 문항
자문위원 A	언어	문항카드 ①, ③
자문위원 B		
자문위원 C	사회	문항카드 ②, ④
자문위원 D	수리	문항카드 ⑤, ⑥, ⑦, ⑧
자문위원 E		
자문위원 F		

(1) 문항카드 ① (논술우수자전형A-1[언어])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A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p>○ 문항에 관한 분석</p> <p>‘㉠에서 구보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 하라는 문항은 근대 도시 공간 속 개인의 정서 형성 원인을 추론하는지 평가한다, ‘㉡의 구보가 고독을 대하는 태도와 ㉢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하여 서술’ 하라는 문항은 개인의 고독과 존재론적 외로움이라는 정서 인식 및 대응 태도를 적절하게 비교하는지 평가한다. 문학 작품이 형상화하는 인물의 정서 형성 원인 추론하기와 서로 다른 정서 인식 및 대응 태도 비교하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p>

○ 자료에 대한 분석

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나**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는 모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근대 소설과 현대 시가 각각 형상화한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근대 도시인 경성의 공간을 배경으로 군중 속에서도 고독감을 느끼는 개인의 내면을 묘사하며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의 인간 소외 문제를 드러낸다. ‘수선화에게’는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제시한다. 이 자료는 모두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텍스트성 맥락’에서 이해함으로써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국어과 성취기준을 충실히 구현한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이 문항은 근대 소설이 형상화한 인간의 고독과 현대 시가 제시하는 외로움의 의미를 비교하며, 문학 작품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인간과 세계의 이해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 이해’라는 문학 과목의 본질에 부합한다. 단순하게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비판적·통합적 사고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출제 의도로 판단된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의 고독은 ‘삶의 방향 상실과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근원적 불안에서 비롯’되는데, 구보는 이러한 고독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진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수선화에게’에서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며 ‘구보’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문항 해설에 사용된 어

휘와 내용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배경지식 없어도 학생이 자신의 답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항목>은 ① 구보가 느끼는 고독의 원인 이해, ② 근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고독의 속성 추론, ③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의 이해, ④ 두 인물의 태도 비교, ⑤답안의 구성과 표현 ⑥ 어문 규정과 분량이라는 요소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는 문항이 요구하는 사고 과정을 ‘원인 파악, 사회적 의미 분석, 관점 이해, 비교와 대조, 내용 조직과 표현’의 단계로 구조화한 것으로, 문항의 출제 의도와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

<채점 기준>은 A부터 E까지 등급별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핵심 항목의 충족 여부와 완성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①, ② 항목과 ③, ④ 항목을 구분하여 등급 판정의 근거로 활용한 점은, 답안 수준의 질적 차이를 합리적으로 변별하는 데 기여한다. 문항의 평가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채점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판단된다.

② 자문위원 B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가**에서 ’ 구보 ‘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라’ 는 문항은 문학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인간의 고독을 근대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하여 철학적으로 파악하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가**의 구보와 **나**의 시적 화자가 고독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 서술하라’ 는 문항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재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세계에서 고독을 회피하는 자와 고독을 인간 존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성장을 위해 고독을 수용하는 자의 태도를 잘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학 작품이 형상화하는 자아 성찰과 상호 소통 태도 함양하기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고독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

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고 하겠다.

○ 자료에 대한 분석

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나**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는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이 글은 모두 ‘문학의 수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추구한다는 국어과 성취기준을 구현한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가족을 이루지도 못하며 군중 속에서 오히려 고독감과 소외감을 더 심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의 본질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그 이유를 고민하게 한다. ‘수선화에게’의 시적 화자는 대답없는 사랑과 눈비 내리는 시련 속에서도 고독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 고독을 인간성 고조의 조건으로 여기고 내면의 성장 계기로 여기는 대조적인 모습을 형상화한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학에 형상화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문학 활동의 본질이다. 문학 활동을 통해 시대 상황에 처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고 다수 대중의 피상적 관계 맺기와 개인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국어과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출제 의도이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가 느끼는 고독은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근원적인 불안에서 비롯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재한 군중 속에서 더 심한 고독감을 느

낀다고 해설한다. ‘수선화에게’에서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여겨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조건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설한다. 이러한 문항 해설에 사용되는 어휘와 내용의 수준이 무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글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항목〉 ①, ②는 논제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항목이고, ③과 ④는 제시문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이고, ⑤는 논리적 표현력, ⑥은 어문 규정과 답안의 분량이므로 채점 항목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채점 기준〉 A는 채점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하며, B와 C는 채점 항목을 모두 충족하되 그 완성도에 따라 차등을 두며, D와 E는 채점 항목의 누락과 그 완성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므로 채점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2) 문항카드 ② (논술우수자전형A-2[사회])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C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이 문항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루면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통일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 제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이 남북통일의 당위성 및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단순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넘어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제시문의 출처가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어 별도의 선행학습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자료에 대한 분석

제시문 [가]와 [나]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수록된 내용으로, 제시문 [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 비용의 실익을, 제시문 [나]는 경제적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인 편익과 비용의 개념과 함께 두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오랜 분단으로 서로 다른 언어 사용과 교육 체계,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단적인 예를,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 수록된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가 통일 이후 남북 간 사회, 정치적 대립으로 재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 제시문들은 수험생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함께 통일 과정이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파악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한 충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이 문항과 관련된 별도의 선행학습이 요구되지 않고,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음.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이 문항은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 경제적 관점의 편익과 비용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더 나아가 통일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들이 통일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과, 남북의 언어, 교육, 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력, 분석력, 구성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논술 문항의 근거로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짐.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통일 비용이 단순한 지출이 아닌,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제도 통합에 쓰이는 발전적 지출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자산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결정짓는 요소인 편익과 비용의 관계에 비유하여 경제적 사고의 관점에서 통일 비용을 다루고 있다. 이때 제시문 [나]는 제시문 [가]의 정당성을 추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시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다]는 남북의 교육체계, 생활양식, 언어의 차이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문화현상을, 제시문 [라]는 통일 이후 지역주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남북의 정치적 대립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통일이 경제적 이익만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사회, 문화적, 정치적 공감과 배려의 인식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사고의 형성을 확장시키는 매우 적절한 문항 해설임.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이 문항은 제시문 [가]의 주장을 [나]를 배경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대한 이해력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문 [다]의 통일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추론능력과 함께 제시문 [라]의 지역주의 문제에 기반한 통일 이후의 정치적 갈등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을 채점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적절한 채점 항목을 설정하고 있음.

(3) 문항카드 ③ (논술우수자전형B-1[언어])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A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 기 에서 기계의 의미를 설명’ 하라는 문항은 상징어에 함축된 인

물의 속성을 해석하는지 평가한다, ‘**가**의 회기와 **나**의 인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 하라는 문항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적절하게 비교하는지 평가한다. 상징어의 함축적 의미 해석하기와 인물의 처지와 태도 비교하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

○ 자료에 대한 분석

가 차범석의 ‘성난 기계’와 **나**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는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국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각각 산업화 사회의 비인간화된 노동 현실과 그 속에서도 유지되는 인간적 연민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성난 기계’는 산업화 사회의 직업윤리와 생명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통해, 인간이 직업적 역할에 종속될 때 발생하는 비인간화의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낸다. ‘공사장 끝에’는 열악한 노동 현실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연민을 지키려는 인부의 태도를 통해, 비인간적인 산업화 사회 속에서 유지되는 인간 존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자료는 모두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 한다는 국어과 성취기준을 구현한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이 문항은 산업화 사회에서 ‘고용된 노동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인물들이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추론·비교하며, 문학 작품을 통해 직업윤리, 인간 존엄, 사회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 이해’라는 문학 과목의 본질에 부합한다. 단순하게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탐구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비판적·통합적 사고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출제 의도로 판단된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성난 기계’에서 ‘기계는 생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는 존재이자 그로 인해 인간적 감정을 잃은 존재’로, 회기는 기계의 의미를 ‘직업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함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공사장 끝에’에서 인부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연민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문항 해설에 사용된 어휘와 내용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배경지식이 없어도 학생이 자신의 답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항목>은 ① 상징어의 의미 해석, ② 각 인물의 태도 분석, ③ 각 인물 태도의 공통점 비교, ④ 직업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평가, ⑤ 어문 규정과 분량이라는 요소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는 문항이 요구하는 사고 과정을 ‘해석, 분석, 비교, 평가, 표현’의 단계로 구조화한 것으로, 문항의 출제 의도에 부합한다.

<채점 기준>은 A부터 E까지 등급별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핵심 항목의 충족 여부와 완성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③, ④ 항목과 ①, ② 항목을 구분하여 등급 판정의 근거로 활용하여 답안 수준의 질적 차이를 변별할 수 있으며, 채점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판단된다.

② 자문위원 B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가**’의 ㉠의 의미를 설명하라 ‘는 문항은 문학 작품 속에서 상징어를 통해 현대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파악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하고, '㉠의 회기와 ㉡의 ㉢에서 나타난 인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은 작품 속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과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며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론하여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학 작품에서 공통의 소재에 대한 인물들의 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한다고 하겠다.

○ 자료에 대한 분석

㉠ 차범석의 '성난 기계', ㉡ 이시영의 '공사장 끝에'는 모두 고등학교 국어과(국어,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국어과 성취기준을 구현한다. '성난 기계'의 회기는 생계를 위해 감정 없이 반복적인 노동을 거듭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형상화한 반면에 '공사장 끝에'의 인부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처지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연민을 보이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비인간적 사회구조에 순응한 자와 작게라도 저항하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형을 재고하게 한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삶의 의미를 깨달음'은 문학 활동의 본질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극단적 이기주의와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낳는 비인간적 사회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인물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은 인간성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계발하는 역량을 키우는 국어과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출제 의도이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성난 기계’에서 ‘기계’는 생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하는, 감정이 마비되고 인간적 감정을 잃은 존재를 상징한다고 해설하면서 그 작품 속 회기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이지만 단순 직업인으로서 위험한 일은 피하려는 기계적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해설한다. ‘공사장 끝에’에서 인부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처지에서도 철거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려는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해설한다. 이러한 문항 해설에 사용되는 어휘와 내용의 수준이 무난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글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항목> ①, ②는 제시문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이고, ③, ④는 ②를 이해하는 보조적 항목이고, ⑤는 어문 규정과 답안의 분량이므로 채점 항목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한다.

<채점 기준> A는 채점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하며, B와 C는 채점 항목을 모두 충족하되 그 완성도에 따라 차등을 두며, D와 E는 채점 항목의 누락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므로 채점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

(4) 문항카드 ④ (논술우수자전형B-2[사회])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C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이 문항은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를 자연조건, 자원, 노동, 자본 등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자본, 기술, 정보력 등에서 불리하여 국가 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이 급기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하고 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세계화의 관점에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기후대처자금 지원의 필요성과 의미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음.

○ 자료에 대한 분석

제시문 [가]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발전 배경과 함께 세계화가 국가 간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각 국가의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품의 특화 및 생산으로 인해 활발해진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다]는 각국의 경제력 차이가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범죄증가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제시문 [라]는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했음을 다루고 있다. 위 제시문 모두 고등학교의 세계사,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발췌된 것으로 별도의 선행 학습 없이 현행고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험생에게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임.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이 문항은 수험생들에게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발전과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또한, 개발 도상국이 자본과 기술, 정보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기후변화상황 대처 역량 부족이 사회갈등, 범죄증가 등의 어두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 도

상국의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수험생의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추론능력을 요구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제시문 [가]는 세계화를 통해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발전 배경과 함께 세계화의 그늘인 국가 간 빈부 격차 확대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무역 활성화가 각 국가의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품의 특화 및 생산 등의 국제적 분업으로 인해 활발해지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제시문 [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다]는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대처 능력이 경제력의 정도와 정비례함을 네델란드와 방글라데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상실은 사회적 갈등과 범죄 증가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됨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파리 협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적절하게 문항을 해설하고 있음.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이 문항은 제시문 [가]에서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제시문 [나]의 각 국가의 특화와 비교 우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문 [다]의 경제력에 의해 기후 변화 대처 역량의 정도가 좌우되며 이에 대한 약화가 결국 사회갈등, 범죄증가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됨을 분석하고, 이는 결국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빈부 격차의 결과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에 제시문 [라]의 파리 협정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후 변화 대처 능력 역량 차이를 완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채점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적절한 채점 항목을 설정하고 있음

(5) 문항카드 ⑤ (논술우수자전형A-1[수리])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D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1-(1)은 두 소수의 곱이 47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쌍을 찾는 경우의 수 문제이다. 1-(2)는 함수 $f(m)=n$ 의 성질을 찾고,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특히 $f(m)=n$ 의 성질을 찾는 과정에서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며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의 범위 내에서 해결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소인수 분해와 관련한 문제로 학생들이 낯설어 할 수 있지만 **가**의 내용을 통해 1-(1)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경우의 수를 활용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안내가 제공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2)의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f(m)=n$ 의 성질을 찾고 **나**의 수열의 합을 기반으로 한 공식을 떠올리는 학생의 경우 수월하게 해결했을 것이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 소수를 소재로 한 문제로 경우의 수, 수열의 합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교육과정에 적절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두 소수의 곱이 47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쌍을 찾는 과정과 $f(m)=n$ 의 성질을 찾는 과정 모두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며, 교육과정 내의 학습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경우의 수를 찾는 과정과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해설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수에 대한 소인수 분해를 통해 이루어진 곱셈이 주어진 함수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수학적 추론 역량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각 항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채점 항목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2)의 두 번째 단계에 “앞에서 구한 관계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관계식도 채점 기준에 들어가면 좀 더 명확한 채점 기준이 될 것이다.

② 자문위원 E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1) 소수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며, 210보다 큰 수이며 10000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개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f(m)=6$ 이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막상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평범한 문제이다.

(2) $f(ab)=f(a)+f(b)$, $f(a^n)=nf(a)$ 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f(nab^n)=f(n)+f(a)+nf(b)$ 으로 변형하여 계산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후 합의 기호 \sum 의 성질을 이용하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1) 이 문항의 경우 소수의 개념만 이해하면 겉보기와는 달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2) 2번 문항의 경우 합의 기호 \sum 의 성질이 여기서도 기존의 다른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됨을 인지하는데 다소 혼돈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초를 다진 학생이라면 잠시 머뭇거

린 후 바로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기본에 충실한 문제로 기초만 잘 다져져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문제로 보임.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간단하게 보이는 소수의 개념을 잘 응용하여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변형하였음. 특히 1번 문항을 해결하고 나면 2번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출제 의도와 출제 근거도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로 사료됨.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주어진 문항에 대해 교육과정의 범위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간결하며, 잘 설명하고 있는 해설로 보여진다. 특히 첫번째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소인수분해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인수들을 셀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문항은 소인수분해를 통해 이루어진 곱셈과 관련된 문항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문항이 출제 되었으며, 그 문항에 맞게 채점 기준과 항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1-(1) 문항의 경우 학생들의 답안을 미리 예상하여 소인수분해 결과를 제시하거나, 파악해야 할 두 개의 소수를 추가하여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소수를 이용해 가능한 모든 쌍을 구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점수를 분배하였음.

1-(2)의 경우 앞 부분의 내용보다는 계산 결과를 모두 이용해 최종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지에 좀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하고 있어 단계별로 좋은 채점기준이며 그 항목 또한 적절함.

③ 자문위원 F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p>○ 문항에 관한 분석</p> <p>소수의 기본개념과 이를 활용한 연산에 대한 문항이다. 소인수분해, 소수, \sum의 개념 뿐만 아니라 경우의 수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주어졌던 조건에 적합한 수를 찾아가는 문제 해결 능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다. 이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항이다. 또한, 문항에 중복된 소수에 대한 계산에 대한 응시자의 혼란을 막는 예시가 주어졌는데, 이는 매우 적절하다.</p> <p>○ 제시문에 대한 분석</p> <p>주어진 제시문 [가]와 [나]의 논제를 파악하고 풀어냄에 있어 아주 적절하지만, 단순 계산 연습만 해온 응시자들은 제시문 [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하위 문항 (2)를 풀 때 제시문 [가]에서 언급한 ' 경우의 수를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 '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지만 10개 정도의 항을 더하는 문제의 경우 함수의 모든 인수에 대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정도의 복잡도이므로 제시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p>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p>○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p> <p>[문항 1]은 수학에서 중요한 소수라는 개념의 이해하고 주어진 규칙을 파악하여 연산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수학과 수학 I의 교육과정에 적절한 문제이다. 주어진 함수의 규칙에 의해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의 수에서 배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용하고, 수학 I의 \sum의 기본 정의를 이용하면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다.</p> <p>○ 문항 해설의 적절성</p> <p>특정 숫자를 소인수분해한 뒤 주어진 제약조건들을 수식으로 표현</p>

하기만 해도 어렵지 않은 문항으로, 해설이 매우 적절하다. 경우의 수 문제 특성상 전체의 경우를 다 풀어 생각한 수험자의 비중이 높을 수 있으나, 임의의 자연수에 대한 소인수분해를 통해 이뤄진 곱셈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덧셈과 연관된다는 사실이 제시문 [가]와 관련하여 잘 기술되어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각 항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 안에서의 채점 항목으로 적절하다. 다만 하위 문항 (2)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각 단계의 계산 결과와 최종 결과 계산에 대한 배점이 나뉘지면 좋을 것 같다.

(6) 문항카드 ⑥ (논술우수자전형A-2[수리])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D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p>○ 문항에 관한 분석</p> <p>2-(1)은 다항함수 중 삼차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바탕으로 삼차 다항함수 $f(x)$를 찾는 문제이다. 2-(2)는 (1)에서 구한 삼차 다항함수를 활용하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와 다항식의 나눗셈, 함수의 극한 등을 이용하여 다항함수 $h(m)$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항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p>○ 제시문에 대한 분석</p> <p>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가에 제시하여 공식을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수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함수의 기</p>

하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학생들의 단순한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학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삼차 다항함수의 성질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문항으로 도함수의 활용, 다항식의 나눗셈, 원의 방정식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화롭게 잘 적용한 문제로 보인다. 다만, (2) 문자와 식을 (1) 문자와 식으로, (2) 기하 - ③ 원의 방정식을 추가하고, 출제 근거에 제시문[나]의 성취기준에 과목명이 [수학]이 아니라 [수학Ⅱ]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논제에 제시된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g(m)$ 의 식을 1학년 공통 과목인 수학에서 다룬 다항식의 나눗셈을 활용하여 나타낸 뒤 $h(m)$ 을 구하였다. 접선의 방정식을 다루는 경우에서 또한 [수학Ⅱ]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설이 이루어졌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2-(1)의 채점 기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에서의 모든 방정식을 구함’에서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으로 수정하여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삼차함수의 특징과 $f(x)+f(-x)=2$ 를 이용하여 $f'(0)=-1$, $f(0)=1$ 임을 파악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이를 채점기준에 넣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

② 자문위원 E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1) $f(x)$ 가 삼차함수이므로 $f(x) = ax^3 + bx^2 + cx + d$ 라 둘 수 있으며,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f(-x) = 2$ 이므로 $b = 0, d = 1$ 의 값을 구하는 것까지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기울기의 최솟값이 -1 이 됨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m = 0$ 을 이용하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 원의 반지름과 원의 넓이를 구하여 최종적으로 함수 $f(x)$ 를 구할 수 있는 문제로 한 문제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많은 학생들이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됨.

(2) ‘ $\lim_{m \rightarrow \infty} [g(m) - h(m)] = 0$ 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h(m)$ 를 구하시오.’

라는 단순한 문장의 문제였으나 실제로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원의 반지름과 원의 넓이를 구한 후, 극한값이 0임을 이용하여 $h(m)$ 을 구할 수 있는 복잡한 형태의 문장으로 한 문장에서 많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음.

○ 제시문에 대한 분석

문항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이론을 가져와서 한 문항을 구성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자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다소 간략하게 주어진 부분은 있었지만 변별을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1번 문항에서 기울기가 $m = 0$ 인 두 접선의 방정식이 $y = \pm \frac{2}{3\sqrt{3a}} + 1$ 이 되면서 숫자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번 문항으로 연결되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y = \left(\frac{1}{9}\alpha^2 - 1\right)x - \frac{2}{27}\alpha^3 + 1$ 이 되어 계속해서 복잡한 숫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이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가 어려운 점 보다는 결괏값의 숫자가 복잡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므로

써 내가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지를 의심하여 자신있게 풀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풀이과정에서의 식은 간단한 정수 혹은 유리수정도까지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곡선 $y=f(x)$ 위의 점 $P(a, f(a))$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 가 되며, 기울기가 $m=0$ 인 두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원의 반지름과 넓이를 동시에 구함으로써 삼차함수를 구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좋은 문제로 보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별을 위해 잘 만들어졌음.

특히 2번 문항은 간단한 극한의 문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앞에서 주어진 많은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수학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임.

○ 문항 해설의 적절성

(1) 해설이 상세하게 잘 작성되어 있음. 다만 가정으로부터 $f'(x)=3ax^2+c$ 은 최솟값이 -1 이 됨을 자세히 기술되어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f'(x)=\frac{1}{9}x^2-1$ 이므로 점 $(\alpha, f(\alpha))$ 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left(\frac{1}{9}\alpha^2-1\right)x-\frac{2}{27}\alpha^3+1$ 임을 유도하는 과정과, **가**에 근거하여 접선 사이의 거리는 $\frac{4(m+1)^{3/2}}{\sqrt{m^2+1}}$ 임을 유도하는 과정이 좀 더 상세하게 기술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근거 **가**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주어졌으므로, 풀이에서도 이에 맞춰서 점의 좌표를 같이 주어지면 좋을 듯 합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2-(1)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반부 부분에서 배점을 크게 하여 실제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그 이후의 부분은 앞부분만 찾아내면 쉽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점수 배점과 항목이 적절함.

2-(2)의 경우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것 보다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건에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에 맞게 채점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항목도 적절하였음.

③ 자문위원 F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임의의 다항함수를 정의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 함수의 계수들을 차례대로 찾아가는 문제이다. 수학과 수학II 교육과정에서 배운 미분계수, 접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극한 등의 여러 가지 개념이 필요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으므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로 구성된 문항으로 보인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주어진 자료는 고등학교 수학의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와 수학II의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시간 내 본 문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자료는 문제를 풀기에 적합하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을 미분과 연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출제의도는 매우 적절하다. 다항함수 중 삼차함수는 다양한 변화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함수이고, 이를 찾기 위해 주어진 조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삼차함수라는 문항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기본 식을 정의한 뒤 제시문에 주어진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첫 번째 문항인 삼차함수를 찾아내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두 번째 문항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항의 해설은 적절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풀이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출제 의도를 반영하여 풀이의 핵심단계별로 부분점수를 제공하고 있어 기준과 그 항목이 적절하다. 다만 2-(1)에서 가장 큰 배점이 주어진 항목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적용한 조건을 적용한 결과 제시’에 대한 것으로, 함수의 관계식과 기울기 조건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면 좋을 듯하다.

(7) 문항카드 ⑦ (논술우수자전형B-1[수리])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D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지수·로그의 성질을 활용하여, 주어진 치

료 상황에 따른 환자 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단순히 환자 수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비용의 최솟값을 도출하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학적 모델링 능력, 추론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고등학교 <수학 I> 교육과정의 수열 및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 다루는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출제되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타당한 문항으로 판단된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치료비용에 대한 소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학의 실용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 치료법 A를 두 번째부터 적용하면 ~” 과 같은 부분에서 다소 B를 처음 적용하고 다음으로 A를 적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또한 k 의 범위를 자연수로 명확히 언급을 한다면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고등학교 수학 I의 수열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환자 수를 모델링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로그함수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에 적절하다. 즉,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함. 나아가 주어진 상황을 모델링하고 이를 적절히 연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각 치료법의 적용 순서가 최종 환자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수학적 성질과 비용 계산 시 로그함수를 도입하여 계산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 방식을 핵심적으로 기술하였음. 문제의 구조와 해결 방향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 문항 해설로서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기준과 배점이 적절하며, 예시 답안을 보았을 때 수학과 교육 과정을 적절하게 지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를 활용하지 않고, n 과 k 이 자연수임을 이용하여 계산을 통하여 풀이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 이를 채점 기준이나 예시 답안에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② 자문위원 E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치료법 A를 처음 적용할 때 남아 있는 환자의 $\frac{2}{3}$ 가 다음날 질병 으로부터 회복되고, 치료법 A를 두 번째부터 적용하면 남아 있는 환자의 $\frac{1}{3}$ 이 다음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 라는 제시문을 통해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논술고사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치료법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좋은 문항으로 보입니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풀이과정에서 숫자가 다소 복잡한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log 2 = 0.30$, $\log 3 = 0.48$ 로 간단하게 바꾸면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수열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좋은 예제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거 또한 고등학

교 교육과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1) 적절함.

(2) (예시 답안) ‘ $k=0$ 인 경우, **가**에 의하여 $a_n = a\left(\frac{1}{2}\right)^n$ 이므로 $a_n = a\left(\frac{1}{2}\right)^n \leq a \times 3^{-3}$ 즉, $\left(\frac{1}{2}\right)^n \leq \left(\frac{1}{3}\right)^3$ 이어야 하고.....’

위 (예시 답안)처럼 문항 해설에서 ‘ $k=0$ 인 경우, $a_n = a\left(\frac{1}{2}\right)^n$ ’ 임을 언급한 후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친절한 풀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k=1,2,3,4,\dots$ 일때를 상세히 나열하여 비용을 계산한 부분은 친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1-(2)번 문항의 경우 채점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용해 최소 비용 계산(10점)
2. 앞의 결과를 이용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범위 계산(5점)
3. 특정 치료법을 선택해 각 발생 횟수에 따라 비용 계산(10점)
4. 앞의 결과들을 이용해 문제에서 요구한 해답 제시(5점)

여기에서 3, 4번 항목은 대략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 2번 항목의 경우 경계가 모호합니다.

물론 예시 답안의 경우

$k=0$ 인 경우 최소 비용을 구한 경우(10점),

$k \geq 1$ 인 경우 $n \geq 0.4k + 3.8$ 을 구한 경우(5점)

와 같이 직접적인 채점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다양한 풀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디 까지 기술한 경우 몇 점 이렇게 정할 수 없었던 이유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1.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용해 최소 비용 계산(10점)’의 경우 중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결과값 60만원을 도출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해 보입니다.

③ 자문위원 F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p>○ 문항에 관한 분석</p> <p>실생활 문제를 수열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문항이다. 치료된 환자의 비율로부터 남은 환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문항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반대로 생각하여 오답률이 높았을 것이다. 주어진 문항에서 치료법이 두 개이므로 하나를 전혀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서 k가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풀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서술해야하는 수리 논술고사에 매우 적합하다고 사료된다.</p> <p>○ 제시문에 대한 분석</p> <p>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시문 [가]와 [나]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식을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시문 [나]는 하위 문항 (2)를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p>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p>○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p> <p>많은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수열과 지수/로그함수는 중요하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일련의 변화 발생 비율을 수열로 표현할 줄 알고 지수와 로그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지를 검증할 수 있고, 고등학교 수학 I 교육과정 내에서 제시한 출제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매우 적합하다.</p> <p>○ 문항 해설의 적절성</p> <p>고등학교 수학 I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수열과 로그함수의 개념을</p>

충실히 반영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명확히 하고, 풀이의 근거를 잘 제시하고 있다. 하위 문항 (1)은 각 치료법의 적용횟수 별 조건을 나누어 남은 환자 수를 계산하므로, 각 치료법을 사용했을 때 남은 환자 수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하위 문항 (2)는 하위 문항 (1)의 결과와 최소 비용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만들고 조건을 구분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채점 기준과 항목을 가지고 있다. 하위 문항 (2)를 해결할 때 제시문에 주어진 로그를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이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답을 구해가는 과정을 교육과정 수준에서 기술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추가하면 보다 좋을 것 같다.

(8) 문항카드 ● (논술우수자전형B-2[수리])에 대한 문항 분석

① 자문위원 D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정적분을 이용하여 도형 PA_1A_2 의 넓이를 구하고, 다시 정적분을 이용하여 직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통해 k 의 값을 구하는 문제임. 정적분의 계산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를 해결할 때는 삼각형의 넓이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소 아쉽게 느껴졌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곡선과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안에 점 P를 두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첫 문장을 읽고 너무 많은 상상을 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즉, A_1 과 A_2 의 정보를 미리 제시했다면 학생들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미분과 적분 중에서 적분의 활용 과정과 절차를 묻는 문항으로 주어진 수학적 상황에 적절하게 정적분을 계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출제 의도와 근거도 적절해 보인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제시문과 출제 의도에 제시된 수학 개념 및 성질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해설은 적절하다. 학생들이 평소에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과 표현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수학II]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범위 내에서 정적분의 활용 계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기준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채점 항목으로 타당하다. 2-(2)의 채점기준에서 사용한 평행선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호함으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② 자문위원 E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응용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없이 주어진 문장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유추해야 하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어 좋은 문항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좋은 문항인 것 같습니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아야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제만 볼 때에는 살짝 어려워 보였으나 ‘ A_1 은 원점이고 A_2 의 좌표는 $(1, 1)$ 이다.’ 라는 조건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간단한 이차함수와 적분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다.

문제에서의 출제 의도에 충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9개의 점이 반시계 방향으로 놓여있다는 점에서 대칭성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로 출제 의도와 근거는 적절해 보입니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1), (2) 문항 모두 상세한 해설로 인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제는 도형의 면적을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두 번째 문제는 도형의 대칭성을 정확

하게 이해하여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 문제의 핵심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적절한 해설로 보입니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채점 기준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 과정의 단계별로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추상적으로 보여 자칫하면 채점자간의 점수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답안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지만 수시 논술 고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입시 시험인 만큼 정확한 채점 기준을 제시하여, 채점자간 점수차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확하게 제시되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의 경우

1. 도형 PA_1A_2 의 넓이를 구한 경우 (5점)
2. $y = x^2$ 과 $y = k$ 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frac{9}{2}$ 를 구한 경우 (5점)
3. $y = x^2$ 과 $y = k$ 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frac{4}{3}k\sqrt{k}$ 를 구한 경우 (5점)
4. $k = \frac{9}{4}$ 를 구한 경우 (5점)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채점기준을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③ 자문위원 F

문항 및 자료에 대한 분석

○ 문항에 관한 분석

적분을 이용하여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함수의 그래프 대칭성, 평면 위의 좌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등의 개념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선행학습 없이 고등학교 수학과 수학II의

교육과정을 학습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다.

○ 제시문에 대한 분석

제시문 [가]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함수와 x 축 및 두 직선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곡선과 직선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개념으로, 수학Ⅱ의 교육과정과 문항 풀이에 적합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한다.

출제 의도 및 근거, 문항 해설, 채점 기준 및 항목에 대한 분석

○ 출제 의도 및 근거의 적절성

본 문항은 단순히 적분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교과과정에서 배운 개념과 그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다. 미적분은 거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 해결 도구로, 넓이와 관련된 적분의 역할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는 출제의도는 매우 적절하다.

○ 문항 해설의 적절성

제시문과 출제 의도에 제시한 개념 및 특성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설의 방향은 매우 적절하다. 하위 문항 (1)은 정적분을 이용하여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통해 미지수의 값을 찾고, 하위 문항 (2)는 도형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찾는 과정으로,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시한다.

○ 채점 기준 및 항목의 적절성

정적분과 도형의 대칭성만 잘 사용하면 해결에 어려움이 없는 문항인 만큼, 각 항목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경기대학교는 대학별 고사 운영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고교교사 참여 확대, 출제위원 교육 강화, 모의논술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선행학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1. 출제 및 검토 개선

(1) 출제위원 대상 사전교육 강화

우리 대학은 대학별 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출제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선행학습 영향평가 기준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제 단계에서부터 교육과정 범위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모든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2) 모의논술고사 시행 및 대학별고사 안내 활동 지속

경기대학교는 수험생이 대학별 고사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논술고사와 관련해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통해 기출문제를 공개하고, 채점 기준과 문항 해설, 예시 답안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출제 방향과 평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모의논술은 지역과 고교 간 접근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문제 출제 과정에는 논술우수자전형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실제 논술고사와 유사한 난이도와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모의논술 응시자에게는 채점 결과와 문항별 채점 기준, 해설을 제공하여 본교 논술고사의 유형과 평가 요소를 이해하고 자신의 학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논술고사를 포함한 대학별 고사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출제 후 점검 강화

(1)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범위 준수 점검을 위한 고교 교사 참여 강화

논술고사 출제의 신뢰성과 교육과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대학교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출제 검토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 2021학년도부터 언어·사회 영역에서는 각 영역별 1명의 고교 교사가 출제 문항을 검토하였고, 2025학년도부터 수리 영역에서는 2명의 고교 교사가 참여하여 문항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점검하였다.

출제 후 검증 체계도 강화되었다. 2025학년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여, 출제 이후 문항에 대한 추가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은 고등학교 교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논술고사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대학교는 출제 단계에서 검토위원의 점검을 시행하고, 출제 이후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의 분석을 거치는 이중 점검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논술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고 있다.

(2) 대학별고사 출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진행

논술고사 출제 및 검토 절차 종료 후, 경기대학교는 출제위원, 검토위원, 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출제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사항을 비공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확인된 개선점을 향후 출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별고사 실시 후에는 응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운영 과정과 전형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의견은 분석을 거쳐 차년도 대학별고사 개선 및 반영에 활용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

(1)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수험생의 선택권 강화

차년도 입학전형에서는 기존 논술고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한다.

언어·사회 영역에서는 제시문 분량과 답안 작성 분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과도한 독해 및 작성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문(古文) 지문을 제외하는 기존 출제 방향을 유지함으로써, 교육과정 내 학습을 기반으로 해결 가능한 문항을 구성하고자 한다.

수리 영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수학, 수학 I, 수학 II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항을 출제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여,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문·사회 영역과 수리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전형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대학별 고사 운영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차년도에도 동일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전형을 운영하고자 한다.

<부록 1>

문항 1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A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1 [언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고독, 소외	
예상 소요 시간	5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에서 ‘구보’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의 구보가 고독을 대하는 태도와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대비하여 서술하시오. (450 ± 50자)

가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깃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려 하였다. 사실, 사오 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壽男)이나 복동(福童)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음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 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중략)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넓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게 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뻣뻣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고등학교 문학』

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 <수선화에게>, 『고등학교 문학』

3. 출제 의도

현대 사회에서 ‘고독’ 과 ‘소외’ 는 인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대인이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외로운 느낌이 아니라, 근대적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근대인의 고독은 신의 질서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자기 발견, 혹은

중세의 봉건적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진 개인의 탄생과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성적 판단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만 하는 ‘근대적 인간’, 공동체의 윤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근대적 개인’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불안이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편,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경쟁과 효율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고립(감)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간 관계는, 진정한 소통이나 정서적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만남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유용성에 따라 수시로 형성되거나 해체되곤 한다. 그러나 깊은 신뢰나 헌신 대신, 피상적인 친밀감이나 즉각적인 효용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간 관계는 사람들의 정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간 관계마저 도구화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술고사에서는 한국 현대 문학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인간의 고독이라는 문제를 큰 주제로 삼았다. 학생들은 제시문을 읽고, 그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물의 고독이 어떻게 근대인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지 발견해야만 한다. 나아가 그러한 정서를 대하는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삶에 대한 태도마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포착할 수 있어야만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가]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나]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정재찬 외 5인	지학사	2019	81~89	제시문 	X
문학	이승원 외 8인	신사고	2019	314	제시문 	X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작품 속의 ‘구보’는 근대도시 경성의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특징들을 관찰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구보는 백화점이나 전차 안, 경성역과 같은 변화한 도시를 탐험하는 동안 줄곧 어딘지 모를 고독과 외로움을 맛보게 된다. 그런데 인용된 소설에서 보이는 구보의 모습은, 그가 경험하는 고독이, 단지 홀로 있다는 데에서 오는 외로운 감정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구보에게 고독은,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근원적인 불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설 속에서, 정해진 목표를 향해 바쁘게 나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구보는 어디로 가야할지 행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방향을 거듭할 뿐이다. 그리고 것처럼 자신이 가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지조차 알 수 없는 구보에게는, 행복을 찾는 일은커녕, 제대로 된 가족을 이루는 일조차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타성적 일상에 떠밀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자가 경험하는 허무야말로 구보가 느끼는 고독감의 본질인 셈이다.

제시문 (가)의 구보는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피하려 노력한다. 교외나 자연으로 나가 보거나, 반대로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 틈으로 파고 드는 구보의 모습은,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런 구보의 바람과 달리, 그의 고독과 외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깊어질 뿐이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재하는 세계에서,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의 공유나 위로를 찾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소설 속의 구보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고독을 무서워하고,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보와 달리, (나)의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기다리던 사랑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눈비가 내리는 시련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외로움에 슬퍼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 시에서는, 외로움이 단순한 결핍이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인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머무르는 동안,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독과 외로움을 불행으로 바라보는 대신,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적인 조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는 (가)의 구보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가)를 읽고 구보가 느끼는 고독의 이유를 이해하는가? [분석력, 이해력]
- ② (가)의 구보가 경성역에서 느끼는 ‘군중 속의 고독’이 인간 관계의 단절로부터 비롯된 근대 사회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는가? [추론력, 판단력]
- ③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해하는가? [분석력, 이해력]
- ④ (가)의 구보와 (나)의 시적 화자가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하고, 서술할 수 있는가? [논리력, 표현력, 창의력]
- ⑤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⑥ 어문 규정, 원고 분량을 지키고, 적절한 분량으로 배분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미흡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셋 이상이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 구보가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의 개인주의 때문이다. (가)에 따르면 구보는 고독을 피해 사람들이 붐비는 곳인 경성역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사람만 많았지, 사람들 간 교류는 부재했으며, 사적 이익만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불신이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 이로 인해 구보는 사람들이 붐비지만 홀로인 것 같은 고독을 느끼게 된다.

(가)의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구보는 외적 상황에 고독의 유무가 달려 있다 생각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며 고독을 피하려 애쓴다. 하지만 고독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반면 (나)의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다. 시적 화자는 외로움은 초월적, 자연적인 모든 존재가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극복하려 애쓰지 말고 의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독을 회피하다가 고독이 어디에나 존재함을 알게 된 구보와 분명한 대비점을 갖는다. 따라서 구보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항 2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A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2 [사회]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통합사회, 정치와 법
	핵심개념 및 용어	통일, 평화, 평화 통일 노력
예상 소요 시간	5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2] **㉠**를 활용하여 **㉡**의 아빠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와 **㉣**를 근거로 하여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700 ± 50자)

㉡	<p>하나: 왜 통일이 돼야 하나요? 지금도 좋은데…… 제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몇천 조 원 이상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거래요.</p> <p>아빠: 하나야. 우리나라가 매년 지출하는 군사비가 국내 총생산(GDP)의 2.5%라는 거 아니?</p> <p>하나: 네? 그럼 40조 원도 넘겠네요.</p> <p>아빠: 통일 비용이 엄청날 거라고들 하지? 하지만 그 돈은 군사비보다 훨씬 더 발전적으로 쓰이지 않겠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경제</p>
----------	--

재건이나 제도 통합에 쓰는 돈이니 말이야.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우리의 자산이란다. 분단 비용은 한번 지출하면 돌아오지 않는 세금이고, 통일 비용은 지출한 만큼 다시 돌아오는 투자금이야.

하나: 그러네요. 사회 기반 시설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는 건 투자지 낭비가 아니죠.

아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도 약화되잖아. 이것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경제적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편익이고 다른 하나는 비용이다. 편익이란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이나 이익을 의미한다. 편익은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비용은 선택한 대안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때의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질문: 남북 화해의 상징인 북한의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북측 근로자들을 보셨을 때 어땠나요? 이질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답변: 저는 북한 사람들은 정말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머리에 뿔은 없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질문: 서로 경계해서 웃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농담까지 주고받았다는 거죠?

답변: 처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제가 먼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러자 “그 말은 남녀 사이에 쓰는 말 아닙니까?” 라면서 의아해하더군요.

『고등학교 한국사』

리

사회자: 이번 국회 의원 선거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선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의예요.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다른 정당 후보는 거의 당선되지 못하니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을: 저는 갑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갑이 말하는 지역주의도 결국 그 지역 다수 유권자의 뜻이 선거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정책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해요.

『고등학교 정치와 법』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남북 통일을 당위적 목표로만 인식하지 않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경제적 합리성을 비용과 편익을 통해 설명하고, 남북의 언어·교육·문화 차이와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문을 참고하여 명확히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10통사08-03]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제시문[가]

기준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제시문[나]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10한사04-08] 남북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	제시문[다]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정치와 법		관련
성취 기준	[12정법03-02] 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시문[라]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육근록 외 6인	동아	2018	241	제시문[가]	X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인	지학사	2018	139	제시문[나]	X
한국사	박중현 외 9인	해냄에듀	2020	308	제시문[다]	X
정치와 법	정필운 외 8인	비상교육	2019	90	제시문[라]	X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의 아빠는 통일비용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수 가능한 투자로 이해한다. 그는 분단 상황에서 매년 지출되는 군사비와 같은 분단비용은 생산성이 없는 낭비지만, 통일비용은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제도 통합에 쓰이는 발전적 지출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자산이 된다고 본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이란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진다. 아빠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사고에 기초한다. 그는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평화 정착과 외국 자본 유입, 새로운 시장 창출, 한반도 경제권 확대 등 더 큰 편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빠는 통일이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합리적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보이듯 남과 북은 오랜 분단으로 서로 다른 언어 사용과 교육 체계,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상호 이해 부족과 가치관의 충돌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라)의 지역주의 문제는 통일 이후 남북 간 정치적 대립으로 재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정 지역이나 세력 중심의 사고가 강화되면 대표성 논란이나 권력 분배 문제로 정치통합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경제적 이익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문화적 공감과 정치적 포용을 병행해야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의 아빠가 제시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 ② 제시문 (나)의 비용과 편익 개념을 활용하여 아빠의 관점을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 ③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 ④ 제시문 (라)의 지역주의 문제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의 정치적 갈등과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미흡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셋 이상이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제시문 (나)에 따르면 경제적 선택을 할 때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의 아빠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 시 가져오는 편익이 크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찬성한다. (가)에 따르면, 우선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분단 비용인 군사비가 매년 GDP의 2.5%나 소모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통일 비용은 소모적이지 않고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며 안정화가 되면 감소하게 된다. 즉, 통일이 되면 소모적인 분단 비용이 사라지고 투자적인 성격을 가진 통일 비용으로 발생할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이 되면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어 전쟁에 대한 불안감 완화, 외국 투자 유치, 국가 브랜드 강화 등 금전적, 비금전적인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다)와 (라)에 따르면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통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다)는 북한과 한국이 같은 말을 쓰지만 문화가 달라 완벽한 소통이 어렵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역사를 교육받아 경계심을 가진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완벽한 동화를 막기에,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한 민족이었던 역사를 교육받아야 한다. (라)는 한국도 지역주의로 확실한 정치적 통합이 일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 통일이 일어나면 남과 북으로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견해가 더욱 다양해지기에 통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 충돌과 정치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정치인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소통을 해야 한다.

문항 3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B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1 [언어]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인간애, 유대, 공감	
예상 소요 시간	5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1] **ㄱ**의 ㉠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ㄱ**의 회기와 **ㄴ**의 ㉡에서 나타난 인부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50 ± 50자)

ㄱ	<p>【앞의 줄거리】 어린 자식들이 있는 김인옥은 담배 공장에서 포장공으로 일하고 있다. 폐 전문 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종합병원의 폐 외과 과장으로, 간호사 정금숙과 일하고 있다. 회기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인옥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한다.</p> <p>인옥: 선생님…….</p> <p>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덕과 마찬가지로…….</p> <p>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p>
----------	---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예요?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회기: 댁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댁의 손처럼…….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회기: (약간 감동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회기: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옥: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값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차범석, <성난 기계>, 『고등학교 국어』

나

“지금 부셔 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안 돼, 오늘 밤은 오늘 밤은이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

㉠ “그래도 안 돼……”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섞이어 들려오는

루핑 집* 안 단칸 벽에 기대어 그 여자

작은 발이 빠져나온 어린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 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흙처럼 캄캄한 밖을 내다본다

*루핑 집: 물막이 천으로 지붕을 한 무허가 주택.

이시영, <공사장 끝에>, 『고등학교 문학』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제시문(가)의 ㉠ ‘기계’ 라는 상징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의 회기와 (나)의 인부가 타인에게 보이는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과 태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의 회기가 ‘의사’ 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상징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인물이 처한 상황,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두 인물의 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1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제시문[가]
	성취 기준 2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가]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제시문[나]
성취 기준 2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제시문[나]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정재찬 외 5인	지학사	2019	263	제시문[가]	X
국어	민현식 외 12인	좋은책 신사고	2018	128 ~130	제시문[나]	X

5. 문항 해설

(가)의 ‘기계’는 생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을 하는 존재이자 그로 인해 감정이 마비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적 감정을 잃은 존재를 상징한다. 또한 회기의 “택의 손처럼”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은 옳고 그림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의 회기는 인간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라는 발언에서 드러나듯, 그는 수술의 실패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위험한 일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라는 발언을 통해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정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냉정한 태도를 드러낸다.

반면 (나)의 인부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철거를 미루며 연민을 드러낸다. 인부 역시 “소장이 알면”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조직에 속한 노동자로,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그래도 안 돼”라는 그의 말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연민을 지키려는 태도가 담겨있다.

이처럼 두 인물은 모두 고용된 노동자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회기는 비인간적 사회 구조에 순응한 ‘기계적 존재’로, 인부는 그 속에서도 인간적 온기를 잃지 않은 존재로 대조된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에서 ‘기계’가 지닌 의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추론력, 창의력]
- ② 제시문 (가)의 회기와 (나)의 인부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③ 제시문 (가)의 회기와 (나)의 인부가 고용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④ 제시문 (가)의 회기가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지니며, 그로 인해 그의 환자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 ⑤ 어문 규정, 원고 분량을 지키고, (가)와 (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적절한 분량으로 배분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③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① 또는 ②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가)는 직업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행위하는 수단적 가치로 전락한 상황을 표현하며, ㉠은 그러한 모습을 기계로 표현해 자비 없는 사회상의 사람들을 나타낸다.

(가)의 회기는 폐외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인옥의 병 상태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하며,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김인옥의 직업상 역할의 취지를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며, 직업을 이익 좇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회기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한다.

반면 (나)는 인부들이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 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철거를 미룬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직업적 의무로만 국한하는 게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갖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회기는 직업을 수단으로만 보는 한편, (나)의 인부는 직업을 기계적 활동이 아닌 도덕적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문항 4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B형 [사회]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2 [사회]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화, 국제 분업과 무역, 비교 우위, 환 경 문제	
예상 소요 시간	50분		

2. 문항 및 자료

[문항 2] **㉠**를 근거로 **㉡**의 ㉠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의 이유를 추론하여 **㉣**의 ㉡이 가지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700 ± 50자)

가	<p>세계화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세계 각지의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개인은 국가 권력의 통제에서 떨어져 ‘세계 시민’ 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 도상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면서 개발 도상국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유되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p> <p>한편, 세계화는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 등을 갖춘 선진국이나 소수 기업에게 유리하여 국가 간, 개인 간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 추세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세계사』</p>
----------	---

<p>나</p>	<p>각 국가는 기후, 지형 등 자연조건이 다르고,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도 차이가 나므로 같은 종류의 상품을 만들더라도 생산비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국은 생산 조건에 따라 상품을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다. 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국가별로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현상이나 관계를 국제 분업이라고 하는데,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더욱 활발해진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통합사회』</p>
<p>다</p>	<p>기후 변화 현상은 지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다르다. 네덜란드처럼 물에 뜨는 집을 지어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처럼 흙과 짚으로 지은 집이 홍수로 떠내려가 버리는 곳도 있다. 방글라데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주요 섬들의 65%가 바닷물에 잠식되어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집과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빈민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게 더 크게 발생한다면,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생활과 윤리』</p>
<p>라</p>	<p>파리 협정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이다. 장기 목표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 C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에 대한 경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감축 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발 도상국은 자국의 여건을 감안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 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했으며,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발 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생활과 윤리』</p>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각기 어떤 과정을 거쳐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 분야에 특화하여 비교 우위를 가지고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 부문에 특화하여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경제환경을 바탕으로 국제 분업이 이루어져 무역이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세계화가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 비해 자본, 기술, 정보력 등에서 유리하여 국가 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이 기후 변화 현상에 대한 대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선진국에 비해 그렇지 못한 개발 도상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로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기후 변화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변화 협약에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의미를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세계사,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1	[12세사06-02] 세계화와 과학·기술 혁명이 가져온 현대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제시문[가]
	성취 기준 2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제시문[나]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12생윤04-03]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 문제의 사례와 심각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윤리적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다] 제시문[라]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세계사	이병인 외 7인	비상교육	2020	207	제시문 가	X
통합사회	구정화 외 9인	천재교육	2020	156	제시문 나	X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인	천재교과서	2023	145	제시문 다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인	미래엔	2020	139	제시문 라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인	미래엔	2020	140	제시문 리	X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세계화가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개발 도상국보다 자본력, 기술력, 정보력을 갖춘 선진국에 유리하여 국가 간 빈부 격차가 확대된다는 비판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이 각국의 생산 조건에 따른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화하여 국제 분업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각 국가의 자원,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품의 특화 및 생산으로 인해 무역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다)는 기후 변화 현상이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따른 대처 역량의 차이에 의해 국가와 국민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 도상국은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과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를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새로운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 종합적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감축 목표 유형에 차이를 두고,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자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했음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의 세계화가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진 것을 제시문 (나)의 각국의 생산 요소의 질과 양의 차이에 따른 비교 우위와 생산 조건에 따른 특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기후 변화 현상에 대처하는 역량이 각국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제시문 (가)의 세계화에서 비롯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에서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처를 돕기 위해 선진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제시문 (다)의 개발 도상국의 기후 변화 피해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기후 변화 대처 역량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및 항목

● 채점 항목

- ① 제시문 (가)에서 세계화가 선진국은 자본과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도상국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나)의 특화와 비교 우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② 제시문 (다)의 각국의 기후 변화 대처 역량이 국가별로 다르며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기후 변화 피해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되는 것이 (가)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빈부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력, 추론력]
- ③ 제시문 (라)의 기후 변화 협약인 파리 협정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지원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이 (다)의 국가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후 변화 대처 역량 차이를 완화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 ④ 글의 구성과 표현이 논리적이며,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①, ②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두 개가 미흡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셋 이상이 불충분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7. 예시 답안

(나)는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있어 국제 분업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각국이 생산에서 특화된 상품을 교환할 때 생기는 극대화되는 이익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가)의 ㉠은 세계화가 일어나며 선진국은 자신들의 강점인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은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모습을 나타낸다.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과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은 서로의 특화된 무역 상품을 통해 국제 분업의 관계를 맺게 되며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는 모습은 (나)의 국제 분업 효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나라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정도나 그 영향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범죄의 심함을 보여주는 (나)는 (가)가 언급하는 세계화의 역효과를 통해 근거 추론이 가능하다. 세계화를 거치며 무역은 자신이 결핍하는 능력을 갖추며 동시에 자신이 갖고 있는 특화된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 줄 국가들 사이에서 더욱 활성화된다. 이러한 상황의 무역은 특정 국가들의 이익을 불러일으켜 국제 사회 안에서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세계화를 통해 격차가 커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차이를 해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에서 언급하는 파리 협정의 체결과 ㉠의 선진국들의 경제적 지원은 (다)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해결 방안으로 작동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5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A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1 [수리]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경우의 수, 수열
예상 소요 시간	35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p>다양한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한다.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통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수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수학』</p>
나	<p>수열 $\{a_n\}$의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합의 기호 \sum를 사용하여</p> $a_1 + a_2 + a_3 + \cdots + a_n = \sum_{k=1}^n a_k$ <p>와 같이 나타낸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수학 I』</p>

제시문

문제. 임의의 자연수 m 이 소수 p_1, p_2, \dots, p_n 의 곱 $p_1 \times p_2 \times \dots \times p_n$ 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f(m) = n$ 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12 = 2 \times 2 \times 3$ 이므로 $f(12) = 3$ 이다. 단, $f(1) = 0$ 이다.

(1) 210으로 나누어지고 $f(m) = 6$ 인 10000이하의 자연수 m 의 개수를 구하시오. [20점]

(2) 자연수 a 와 b 에 대하여 $f(a) = 5$ 이고 $f(b) = 3$ 일 때,

$$\sum_{n=1}^{10} f(nab^n) \text{의 값을 구하시오. [25점]}$$

3. 출제 의도

소수(prime number)는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로써 암호체계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이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소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소수의 범위와 곱셈 등의 기본 연산과 활용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가]	[수학] - (5) 확률과 통계 - ㉠ 경우의 수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제시문[나]	<p>[수학 I] - (3) 수열 - ㉔ 수열의 합</p> <p>[12수학 I 03-04] Σ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p>
---------------	---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배종숙 외 6인	금성출판사	2018	262
	수학 I	권오남 외 14인	교학사	2018	116

5. 문항 해설

본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첫번째 문제는 소인수분해를 통해 특정 숫자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소인수들을 셀 수 있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임의의 자연수에 대한 소인수분해를 통해 이뤄진 곱셈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결과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적용해 답을 구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도록 소인수분해 결과를 제시	5점
	2. 파악해야 할 두 개의 소수를 추가해 값의 범위를 설정	10점
	3. 미지의 두 개 소수를 범위 내의 소수를 이용해 가능한 모든 쌍을 구함	5점

1-(2)	1. 문제에서 정의한 함수를 이용해 소인수의 개수의 합에 대한 함수의 합으로 표현	10점
	2. 앞에서 구한 관계식을 이용해 합을 계산	5점
	3. 각 단계의 계산 결과를 모두 이용해 최종 결과를 계산	10점

7. 예시 답안

(1) $210 = 2 \times 3 \times 5 \times 7$ 이므로 m 이 $f(m) = 6$ 이고 210으로 나누어지면 적당한 소수 p, q 에 대하여 $m = 2 \times 3 \times 5 \times 7 \times p \times q$ 로 인수분해된다.
 $m \leq 10000$ 이므로 다음과 같은 범위를 구할 수 있다.
 $210pq \leq 10000 \Rightarrow pq \leq \frac{10000}{210} = 47. \times \times \dots$

그러므로 곱이 47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의 쌍은 (2, 2), (2, 3), (2, 5), (2, 7), (2, 11), (2, 13), (2, 17), (2, 19), (2, 23), (3, 3), (3, 5), (3, 7), (3, 11), (3, 13), (5, 5), (5, 7) 이다.

따라서 210으로 나누어지고 $f(m) = 6$ 인 10000이하의 자연수 m 의 개수는 총 16개다.

(2) 임의의 자연수 k, m 에 대하여 km 의 소인수의 개수는 k 의 소인수의 개수와 m 의 소인수의 개수의 합과 같으므로

$$\sum_{n=1}^{10} f(nab^n) = \sum_{n=1}^{10} \{f(n) + f(a) + nf(b)\} = \sum_{n=1}^{10} f(n) + \sum_{n=1}^{10} f(a) + \sum_{n=1}^{10} nf(b) \text{ 이다.}$$

$f(1) = 0$ 이고 $f(2) = f(3) = f(5) = f(7) = 1, f(4) = f(6) = f(9) = f(10) = 2, f(8) = 3$ 이므로 $\sum_{n=1}^{10} f(n) = 15$ 이다.

또한 $f(a) = 5$ 이고 $f(b) = 3$ 이므로 $\sum_{n=1}^{10} f(a) = 10 \times 5 = 50$ 이고

$$\sum_{n=1}^{10} nf(b) = \frac{10 \times 11}{2} \times 3 = 165$$

이다. 그러므로 $\sum_{n=1}^{10} f(nab^n) = 230$ 이다.

문항 6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A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A-2 [수리]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미분계수,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 점선의 방정식, 다항함수
예상 소요 시간	65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가**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점 (x_1, y_1) 과 직선 $ax + by + c = 0$ 사이의 거리 d 는 다음과 같다.

$$d = \frac{|ax_1 + by_1 + c|}{\sqrt{a^2 + b^2}}$$

『고등학교 수학』

나 일반적으로 함수 $f(x)$ 가 $x = a$ 에서 미분가능할 때, 곡선 $y = f(x)$ 위의 점 $P(a, f(a))$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 = a$ 에서의 미분계수 $f'(a)$ 이다.

『고등학교 수학 II』

[제시문]

문제. $f(x)$ 는 삼차함수이다. 곡선 $y=f(x)$ 의 기울기가 m 인 접선이 $m > -1$ 일 때 두 개, $m = -1$ 일 때 한 개 존재하고, $m < -1$ 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또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f(-x) = 2$ 이다. $m > -1$ 일 때 m 을 기울기로 갖는 $f(x)$ 의 두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를 $g(m)$ 이라고 하며, $g(0) = 4\pi$ 이다.

(1) 함수 $f(x)$ 를 구하시오. [25점]

(2) $\lim_{m \rightarrow \infty} [g(m) - h(m)] = 0$ 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h(m)$ 를 구하시오.

[30점]

3. 출제 의도

함수는 자연과학 뿐 아니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특정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인데, 다항식(polynomials)은 이들 함수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형식 가운데 하나이다. 본 문제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을 미분과 연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되었다. 특히 삼차함수는 이차함수와 달리 변화패턴의 대칭점인 변곡점을 갖는 가장 간단한 함수이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현상 내에 포함된 다양한 변화패턴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수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풀어낼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함수를 다루고 있는 대학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가]	[수학] - (1) 문자와 식 - ㉒ 나머지정리, ㉔ 복소수와 이차방정식 [10수학01-02]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10수학02-05]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10수학02-06]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나]	[수학Ⅱ] - (2) 미분 - ㉓ 도함수의 활용 [12수학Ⅱ 02-06]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12수학Ⅱ 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12수학Ⅱ 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배종숙 외 6명	금성출판사	2018	98
	수학Ⅱ	박교식 외 19명	동아출판	2018	57

5. 문항 해설

본 문항을 구성하는 첫 번째 문제는 임의의 삼차함수를 정의한 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주어진 함수에서 특정 기울기를 갖는 접선의 접점과 접하는 원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삼차함수의 특징과 미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앞에서 구한 삼차함수를 이용하여 접점의 방정식을 도출하고 이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 후 제시한 극한의 조건식을 이용해 답을 구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삼차함수의 일반식에 대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적용한 결과 제시	15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에서의 모든 방정식을 구함	5점
	문제에서 제시한 접하고 있는 원의 넓이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삼차함수의 식을 제시	5점
2-(2)	이전 단계에서 구한 함수로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함	5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함	10점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이를 이용해 원의 면적 계산	5점
	각각의 함수를 구한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한값 계산	10점

7. 예시 답안

(1) $f(x)$ 가 삼차함수이므로 $f(x) = ax^3 + bx^2 + cx + d$ 라 둘 수 있다.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f(-x) = 2$ 이므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f(x) + f(-x) = 2bx^2 + 2d = 2 \Rightarrow b = 0, d = 1$$

가정으로부터 $f'(x) = 3ax^2 + c$ 은 최솟값이 -1 이므로 $c = -1$ 이다. 따라서

$$f(x) = ax^3 - x + 1 \text{이다.}$$

이제 $(x, f(x))$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 = 0$ 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f'(x) = 3ax^2 - 1 = 0 \quad \Rightarrow \quad x = \pm \frac{1}{\sqrt{3a}} \quad \Rightarrow$$

$$f\left(\pm \frac{1}{\sqrt{3a}}\right) = a\left(\pm \frac{1}{3a\sqrt{3a}}\right) - \left(\pm \frac{1}{\sqrt{3a}}\right) + 1 = \mp \frac{2}{3\sqrt{3a}} + 1$$

그러므로 기울기가 $m = 0$ 인 두 접선의 방정식은 $y = \pm \frac{2}{3\sqrt{3a}} + 1$ 이다.

두 접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frac{2}{3\sqrt{3a}}$ 이므로 원의 넓이는

$$g(0) = 4\pi = \frac{4}{27a}\pi \Rightarrow a = \frac{1}{27}$$

이다. 따라서 $f(x) = \frac{1}{27}x^3 - x + 1$ 이다.

(2) $f'(x) = \frac{1}{9}x^2 - 1$ 이므로 점 $(\alpha, f(\alpha))$ 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 = \left(\frac{1}{9}\alpha^2 - 1\right)x - \frac{2}{27}\alpha^3 + 1 \text{이다.}$$

$$\frac{1}{9}\alpha^2 - 1 = m \text{라 하면}$$

$$\frac{\alpha}{3} = \pm \sqrt{m+1}$$

이므로 기울기가 m 인 두 접선의 방정식은 $y = mx \pm 2(m+1)^{3/2} + 1$ 이다.

가에 근거하여 접선 사이의 거리는 $\frac{4(m+1)^{3/2}}{\sqrt{m^2+1}}$ 이므로 두 접선에 동시에 접

하는 원의 반지름은 $\frac{2(m+1)^{3/2}}{\sqrt{m^2+1}}$ 이고 원의 넓이는 $\frac{4\pi(m+1)^3}{m^2+1}$ 이다.

결국,

$$g(m) = \frac{4\pi(m+1)^3}{m^2+1} = 4\pi(m+3) + \frac{8\pi(m-1)}{m^2+1}$$

이므로, $h(m) = 4\pi(m+3)$ 라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m) - h(m) = \frac{8\pi(m-1)}{m^2+1} \Rightarrow \lim_{m \rightarrow \infty} [g(m) - h(m)] = 0$$

문항 7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B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1 [수리]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수열, 등비수열, 상용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
예상 소요 시간	4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항 1]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p>차레로 늘어놓은 수의 열을 수열이라 하고,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수학 I』</p>
나	<p>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로그라 하고, 상용로그 $\log_{10}N$은 보통 밑 10을 생략하여 $\log N$과 같이 나타낸다.</p> <p style="text-align: right;">『고등학교 수학 I』</p>

[제시문]

문제 1.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 $a(a > 0)$ 명의 집단이 있다. A와 B의 치료법 중 하나를 날마다 선택하여 이 집단의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하려 한다. 치료법 A를 처음 적용할 때 남아 있는 환자의 $\frac{2}{3}$ 가 다음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치료법 A를 두 번째부터 적용하면 남아 있는 환자의 $\frac{1}{3}$ 이 다음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 치료법 B를 적용하면 남아 있는 환자의 $\frac{1}{2}$ 이 다음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다. 치료법의 적용 비용은 환자 수와 관계없이 회당 A는 10만 원이며, B는 15만 원이다. 단, $\log 2 = 0.30$, $\log 3 = 0.48$ 로 계산한다.

- (1) 치료법을 총 n 번 적용했으며 이 중 A를 k 번 적용했다. 치료법을 마지막으로 적용한 다음 날의 환자 수를 구하시오. [20점]
- (2) 치료법을 모두 적용 후 남은 환자 수가 처음 환자 수의 $\frac{1}{27}$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할 때 드는 최소 비용을 구하시오. [30점]

3. 출제 의도

시간 변화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수열은 단순한 값의 나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을 표현하고 다양한 연산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본 문항은 확률 변화로 파악하기보다 일련의 변화 발생 비율의 변화를 수열로 표현해 다룸으로써 보다 쉽게 풀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그함수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본 문항을 통해 대학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수열과 로그함수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가]	[수학 I] - (3) 수열 - ㉠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12수학 I 03-03]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제시문[나]	[수학 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 지수와 로그 [12수학 I 01-05] 상용로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수학 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24	120
	수학 I	류희찬 외 10인	천재교과서	2024	36

5. 문항 해설

문항의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완치율이 다르지만, 최초 가정한 전체 인원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없이 각 치료법의 적용횟수만 이용해 남은 환자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비율의 한계를 구하는 한편, 로그함수를 적용해 문제를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로부터 각각의 경우에 대해 비용을 구해 그 결과를 비교하면 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1.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비율 정의	10점
	2.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 특정 치료법을 선택해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비율을 계산	5점
	3. 위의 결과들을 이용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계산	5점
1-(2)	1.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용해 최소 비용 계산	10점
	2. 앞의 결과를 이용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범위 계산	5점
	3. 특정 치료법을 선택해 각 발생 횟수에 따라 비용 계산	10점
	4. 앞의 결과들을 이용해 문제에서 요구한 해답 제시	5점

7. 예시 답안

(1) 치료법을 n 번 적용하는 동안 A를 $k(0 \leq k \leq n)$ 번 적용하였다면 B는 $n-k$ 번 적용되었다. A를 처음 적용 후 남아 있는 환자 수는 전일 대비 $\frac{1}{3}$ 이고, 2일째 이후는 전일 대비 남아 있는 환자 수는 $\frac{2}{3}$ 이다. 같은 방법으로 B를 적용하면 남아 있는 환자 수는 전일 대비 $\frac{1}{2}$ 이다.

n 번 적용 후 남아 있는 환자 수를 a_n 이라 하자. $k=0$ 이면 B만 적용하였으므로 **가**에 의하여 $a_n = a\left(\frac{1}{2}\right)^n$ 이다.

결국 $1 \leq k \leq n$ 이면 $a_n = \frac{a}{3} \cdot \left(\frac{2}{3}\right)^{k-1} \left(\frac{1}{2}\right)^{n-k}$ 이다.

(2)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a_n \leq a \times 3^{-3}$ 일 때 최소 비용을 구하여야 한다. $k=0$ 인 경우, $\left(\frac{1}{2}\right)^n \leq \left(\frac{1}{3}\right)^3$ 이어야 하고 따라서 **나**에 의하여

$-n \log 2 \leq -3 \log 3$. 즉, $n \geq \frac{3 \log 3}{\log 2} = \frac{3 \times 0.48}{0.3} = 4.8$ 이어야 한다. n 은 정수

이어야 하고 $n=5$ 일 때, 최소 비용 $15 \times 5 = 75$ (만원)이 발생한다.

$k \geq 1$ 인 경우, $2^{2k-1-n} 3^{-k} \leq 3^{-3}$ 즉, $2^{2k-1-n} \leq 3^{k-3}$ 이어야 한다. 따라서

$2k-1-n \leq (k-3) \frac{\log 3}{\log 2}$ 이고, **나**에 의하여 $n-2k+1 \geq 1.6(-k+3)$. 즉,

$n \geq 0.4k + 3.8$ 이다.

$k=1$ 인 경우, $n \geq 4.2$ 즉, $n \geq 5$ 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 \times 4 + 10 = 70$ 만원이다. $k=2$ 인 경우, $n \geq 4.6$ 즉, $n \geq 5$ 이어야 하고, 이

때 최소 비용은 $15 \times 3 + 10 \times 2 = 65$ 만원이다. $k=3$ 인 경우, $n \geq 5$ 이어야 하

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 \times 2 + 10 \times 3 = 60$ 만원이다. $k=4$ 인 경우, $n \geq 5.4$

즉, $n \geq 6$ 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 \times 2 + 10 \times 4 = 70$ 만원이다.

$k=5$ 인 경우, $n \geq 5.8$ 즉, $n \geq 6$ 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 \times 1 + 10 \times 5 = 65$ 만원이다. $k=6$ 인 경우, $n \geq 6.2$ 즉, $n \geq 7$ 이어야 하고,

이때 최소 비용은 $15 \times 1 + 10 \times 6 = 75$ 만원이다. $k \geq 7$ 인 경우, $n \geq k \geq 7$ 이

어야 하므로 최소 비용은 $10k \geq 70$ 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구하는 최소 비용은 A를 3번, B를 2번 적용할 때,

$15 \times 2 + 10 \times 3 = 60$ 만원이다.

문항 8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B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 자연계열) / 문항 B-2 [수리]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제시문

[문항 2] **가**와 **나**에 근거하여 논제에 답하시오.

가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x) \geq 0$ 일 때, 곡선 $y=f(x)$ 와 x 축 및 두 직선 $x=a$, $x=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는 다음과 같다.

$$S = \int_a^b f(x) dx$$

『고등학교 수학 II』

[제시문]

논제 2. 곡선 $y=x^2$ 과 직선 $y=k$ ($k > \frac{2}{3}$)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경계선 위에 점 A_1 부터 A_9 까지 9개의 점이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

으로 놓여있다. 점 $P\left(0, \frac{2}{3}\right)$ 와 A_1 부터 A_9 까지 9개의 점을 각각
 있는 선분들로 이 영역의 넓이를 9등분하고자 한다. A_1 은 원점
 이고 A_2 의 좌표는 $(1, 1)$ 이다.

(1) k 의 값을 구하시오. [20점]

(2) 주어진 경계선 위의 9개의 점 중에서 직선 $y = k$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30점]

3. 출제 의도

미적분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 뿐 아니라 경제학과 같이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조차 널리 사용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본 문
 제는 적분의 역할과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 과정과 절차를 정확하게 적용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제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제시문[가]	[수학Ⅱ] - (3) 적분 - ㉓ 정적분의 활용 [12수학Ⅱ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I	박교식 외 19명	동아출판(주)	2018	126

5. 문항 해설

문항의 첫 번째 문제는 제시된 조건에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적분과 함께 특정 형태의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들을 이용해 계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을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도형의 대칭성 등을 포함한 각 도형의 여러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삼각형 등 도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평면공간에서 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1.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의 면적 계산	5점
	2. 앞선 계산 결과에 대한 문제 요구 사항 반영	5점
	3. 적분을 이용해 영역의 계산	5점
	4.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 결과 산출	5점
2-(2)	1. 대칭성에 관한 언급	5점
	2. 삼각형 넓이에 대한 계산 결과를 이용해 좌표를 산출	10점
	3. 앞에서 구한 좌표를 이용해 다른 점의 좌표를 식별	5점
	4. 특정 점의 좌표를 이용해 문제에서 지정한 평행선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10점

7. 예시 답안

(1) 도형 PA_1A_2 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rac{1}{2}\left(\frac{2}{3}+1\right)-\int_0^1 x^2 dx = \frac{5}{6}-\frac{1}{3} = \frac{1}{2}$$

$y = x^2$ 과 $y = k$ 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도형 PA_1A_2 의 넓이의 9배이므로 $\frac{1}{2} \times 9 = \frac{9}{2}$ 이다. 한편 $y = x^2$ 과 $y = k$ 의 교점은 $(\pm\sqrt{k}, k)$ 이므로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2k\sqrt{k} - \int_{-\sqrt{k}}^{\sqrt{k}} x^2 dx = 2k\sqrt{k} - \frac{2}{3}k\sqrt{k} = \frac{4}{3}k\sqrt{k}$$

이다.

$$\text{그러므로 } \frac{4}{3}k\sqrt{k} = \frac{9}{2} \Rightarrow k^{3/2} = \frac{27}{8} \Rightarrow k = \frac{9}{4} \text{ 이다.}$$

(2) 직선 $y = k = \frac{9}{4}$ 위에 주어진 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점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대칭성에 의하여 A_5 와 A_6 가 y 축에 가장 가까운 점이고 각각의 좌표를 $\left(a, \frac{9}{4}\right), \left(-a, \frac{9}{4}\right)$ 라 둘 수 있다.

삼각형 PA_5A_6 의 넓이는 $\frac{1}{2}$ 이고 점 P에서 직선 $y = \frac{9}{4}$ 까지의 거리는 $\frac{9}{4} - \frac{2}{3} = \frac{19}{12}$ 이므로 삼각형의 높이는 $\frac{19}{12}$ 이다. 그러므로 밑변 $\overline{A_5A_6}$ 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a = \frac{12}{19} \Rightarrow a = \frac{6}{19}$$

그러므로 A_5 의 좌표는 $\left(\frac{6}{19}, \frac{9}{4}\right)$, A_6 의 좌표는 $\left(-\frac{6}{19}, \frac{9}{4}\right)$ 이다. 곡선 $y = x^2$ 과 $y = \frac{9}{4}$ 의 교점은 $\left(\pm\frac{3}{2}, \frac{9}{4}\right)$ 이고 위 두 점의 x 좌표는 $-\frac{3}{2} \leq x \leq \frac{3}{2}$ 이므로 경계면 위에 있는 점이다. A_4 와 A_7 이 직선 $y = \frac{9}{4}$ 위의 점이라고 하면 삼각형 PA_4A_5 와 PA_6A_7 의 밑변의 길이도 $\frac{12}{19}$ 이므로

A_4 의 좌표는 $\left(\frac{18}{19}, \frac{9}{4}\right)$, A_7 의 좌표는 $\left(-\frac{18}{19}, \frac{9}{4}\right)$ 이어야 하고 두 점의 x 좌표는 $-\frac{3}{2} \leq x \leq \frac{3}{2}$ 를 만족한다. A_3 와 A_8 이 직선 $y = \frac{9}{4}$ 위의 점이라고 하면 삼각형 PA_3A_4 와 PA_7A_8 의 밑변의 길이도 $\frac{12}{19}$ 이므로 A_3 의 좌표는 $\left(\frac{30}{19}, \frac{9}{4}\right)$, A_8 의 좌표는 $\left(-\frac{30}{19}, \frac{9}{4}\right)$ 이어야 하고 두 점의 x 좌표는 $-\frac{3}{2} \leq x \leq \frac{3}{2}$ 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A_3 와 A_8 이 직선 $y = \frac{9}{4}$ 위의 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직선 $y = \frac{9}{4}$ 위의 모든 점의 좌표는 $\left(\pm \frac{6}{19}, \frac{9}{4}\right)$, $\left(\pm \frac{18}{19}, \frac{9}{4}\right)$ 이다.

문항 9

1. 일반정보

유 형	<input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교직 적 · 인성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면접)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부종합(면접)
전 형 명	2026학년도 수시모집 KGU학생부종합전형(디자인비즈)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예체능계 / 문항 A	
출 제 범 위	교육과정 과목명	미술, 미술창작
	핵심개념 및 용어	디자인과 생활, 공공 디자인
예상 소요 시간	60분	

2. 문항 및 자료

공공디자인이란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나 장치를 좀 더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은 사적영역의 디자인과 다르게 공익을 추구하고, 대중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며,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사회구성원 누구나 누리는 공공성에 보다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 거리벽화, 조형물, 공원 놀이시설, 스트리트 퍼니처 등이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생활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공공디자인은 공공장소와 시설물 등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여 개인과 사회의 소통과 공감의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도 한다.

오늘날 주거지역의 전봇대나 지하철역 입구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관한 새로운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글로 설명하고 스케치로 표현하시오.

3.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관련성취기준	1. 교과명: 미술		
	과목명: 미술창작, 미술		관련
	성취 기준 1	[12미창02-05] 작품의 제작 의도를 파악하고 표현 매체 활용의 특징과 효과, 조형 방식의 차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문항A
	성취 기준 2	[12미01-04] 다양한 직업에서 미술의 활용 사례를 찾아 자신의 진로와 연계할 수 있다.	문항A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미술창작	서예식 외 16인	해냄에듀	2018	76-81	문항 A	X
미술	김형숙 외 5명	(주)교학도서	2018	32-33	문항 A	X

4. 평가 방향 및 고려사항

● 평가 방향

- ①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아이디어가 독특하고 스케치로 전달할 수 있는가?(구성력, 표현력)
- ③ 설명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논리력, 표현력)

● 평가 시 고려사항

- ①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 ② 설명이 논리적인가?
- ③ 아이디어가 스케치로 잘 표현되었는가?

5. 채점 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아이디어 사고과정과 표현능력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논리성과 설득력에서 다소 미흡한 경우
D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변의 내용과 근거가 미흡한 경우
E	답변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

<부록 2>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예시 문항

① 사회영역(인성, 공동체의식) 관련 예시 문항

- ▶ (2학년 동아리) 동아리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며 코딩을 주도한 경험이 나타나는데 동아리원들과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과 활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 (1학년 봉사활동) 딥페이크 캠페인 포스터 제작 활동에서 팀원과 협력하며 경각심을 높인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맡은 역할과 활동 과정, 느낀 점을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사회문제 탐구) 디지털 망각 문제나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과 그 이유, 활동 과정에서 배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 ▶ (3학년 자율활동) 카드뉴스 제작에서 협력과 의사소통을 잘 발휘한 경험이 있다면, 협력적인 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과 활동 과정,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진로활동) 공공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면, 의견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접근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 ▶ (봉사활동) 전교학생회 부서별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었고 본인이 학교를 위해 맡은 역할과 활동 과정,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운동부 학습도우미 봉사활동)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 활동 과정과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 내 교실지킴이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이 역할을 맡게 된 이유와 학급 친구들을 위해 수행한 활동, 활동 후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 ▶ (봉사활동) 멘토·멘티 학습도우미 활동에 반복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공동체 기여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② 잠재역량(전공 관련 활동 및 경험, 발전가능성)에 관한 예시 문항

- ▶ (3학년 자율교육과정)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과 ‘왜 다른 알칼리 금속이 아닌 리튬을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발표한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동아리) 청년 실업 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맡은 역할과 프로젝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학교자율교육과정) ‘메타버스로 열어가는 일본 시장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제품을 제안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사회문제 탐구)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며, 조사 과정과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사회문제 탐구) ‘외국어가 우리 일상에 침투하는 정도’를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탐구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확률과 통계) ‘실험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진로활동) ‘청소년 클럽, 일탈 조장인가 놀 권리인가’를 행정학과 연계해 발표하며, 조사 내용과 발표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동아리) ‘자가치유 고분자의 작동 원리와 한계 요인’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와 이를 통해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2학년 화학) ‘급속 동결과 식품의 부패’를 주제로 발표하며, 자료 조사 방법과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동아리) 세균 배양 실험을 응용해 숲의 수질 정화 능력을 실험하며, 실험 설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과 개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사회과학탐구부 동아리) ‘한반도 평화와 외교의 역할’을 탐구하며, 탐구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1학년 전공 기초 일본어) 우키요에가 고희 작품에 미친 영향을 일본어 대본으로 작성하였는데, 활동 과정과 문화 교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글로벌역사외교아카데미) 모의유엔 방글라데시 대사료 기후위기 의견 제시와 폐자원 캠페인을 수행하며, 개발도상국 입장을 대변한 논리와 활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 (3학년 중국어 성조 오류 탐구) SNS·예능 사례 100여 건을 수집·분석하며, 탐구 주제를 선정 하였는데 이유와 비언어적 요소 분류 기준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주세요.

<부록 3>

재외국민특별전형 면접 예시 문항

① 사회영역(인성, 공동체의식) 관련 예시 문항

- ▶ 행특에서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기록이 꾸준히 나타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 ▶ (1학년 행특) 방송반 활동에서 동료 및 선배와 함께 활동한 기록이 있는데, 활동 과정에서 느낀 공동체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 (3학년) 학급 회장으로 활동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와 이를 통해 느끼게 된 리더십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 (3학년 동아리) 타 동아리와 협업한 활동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내용의 협업이었으며 협업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② 잠재역량(전공 관련 활동 및 경험, 발전가능성)에 관한 예시 문항

- ▶ (3학년 동아리) 진로 관련 인터뷰 활동을 진행한 기록이 있는데, 활동 과정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 (2학년 진로) 경찰이 공동체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탐구한 기록이 있는데, 탐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와 이를 통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설명해 주세요.
- ▶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탐구한 기록이 있는데, 해당 요소가 무엇이며 그 이유와 학업 과정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세요.
- ▶ (3학년 언어와매체) ‘SNS 언어 사용 실태와 청소년 언어 인식 변화’ 라는 주제로 탐구한 기록이 있는데, 탐구한 주요 내용과 결론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 (3학년 심화국어) MZ세대를 주제로 발표한 활동이 있는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주도적으로 조사하거나 준비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록 4>

논술우수자전형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경기대학교 논술고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실(031-249-8758)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논술전형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교 논술전형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논술고사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논술고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문에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논술고사 논제의 어휘나 표현이 요구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논술고사의 시험시간(120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논술고사 제시문의 길이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본교에서 실시한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모의논술고사에 참여하였다면, 실제 논술고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부록 5>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에 따라 본교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KGU학생부종합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실(031-249-8758)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생의 사고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부록 6>

재외국민전형 면접고사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에 따라 본교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문의: 경기대학교 입학사정관실(031-249-8758)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외국민전형 면접을 준비하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개념 등을 학습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교 재외국민전형 면접은 고등학교 교과 내용보다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면접에서 받은 질문 중, 교과보다 심화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면접에서 받은 질문이 고등학생의 사고 수준에서 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면접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이 학생부 등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재외국민전형 선발 과정에서 면접평가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2026년 2월 27일 인쇄

2026년 2월 27일 발행

발행처 경기대학교 입학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이의동)

경기대학교 입학처

Tel) 031-249-8758

Fax) 031-249-8678

※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